

# Contents



## issue

기획특집	운동사회 내 성폭력	
	- 운동사회 내 성폭력 : 열정과 신념만으로는 불가능한 '해결'	2
	- 연대를 위한 이야기	6
	- 그들은 모르는 우리들의 진실	9

## info. in common

쟁점과 입장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지극히 무기력한, 어떤 판결	12
	일반적인 행정전산화 시책,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까?	14

## survivor's voices

생존자 말하기	수의 이야기 - 수의 치료법 1 '노출'	16
열린터 생각	열린터 다이어리	22
	달빛시위, 달빛은 없었으나 찬란했다!	22

## edutainment

몸이야기	나와 분리된 몸, 욕망 그리고 거리 (연재 2/3)	24
소모임 생각	죽은 도키코의 부활을 위하여 - 온다 리쿠, 『목요조곡』	26
만나고 싶습니다	서울 수송 초등학교 교사 홍익표	28

## report & membership

원대상담소	원대상담소	30
사업 p/review	자기방어훈련 / 오픈 노하우	32/33
들고나기		34
회원소식	소모임 소식 / 후원 소식	35
	아낌없이 주는 나무	36

# 열정과 신념만으로는 불가능한 '해결'

◎ 여성주의상담팀 이어진



1990년대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성폭력을 구성하고 규정하는 다양한 상황과 맥락들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20대 일반의 젊은 여성'에게 발생한다는 인식을 뒤엎고, 가족관계, 직장내, 교수사회, 데이트 관계 등의 다양한 권력관계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임이 밝혀졌다. 운동사회<sup>1)</sup> 또한 성폭력이 발생 가능한 공간으로 인식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지만, 2000년 10월 성폭력 사례를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한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위) 활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 새롭게 발견되는 성폭력 그리고 자정능력에 대한 질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일지에는 가해자 유형을 표시하는 체크박스가 있다. 상담현황을 분석할 때 가해자 집단을 범주화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데, 2000년을 즈음하여 단체활동가 및 사회복지기관종사자와 같은 집단을 나타내기 위한 카테고리가 생겨났다. 수적으로 운동사회 내 가해자가 증가한 것인지, 일반적 성폭력 집계 추이와 유사하게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지는 단언하기 어려우나, 실제적으로 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최근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우리 상

담소에서 상담 혹은 사건지원을 맡게 되는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 또한 늘고 있다.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운동사회는 조직의 자정능력에 기반을 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최근 운동사회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정을 들여다보면, 해결을 위한 조직의 자정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개별 조직은 민·형사상 가해자를 처벌하기에 앞서 조직 내에서 자체적으

1) 박정미(2002)에 따르면 '운동사회'는 엄밀한 이론적 개념 정의라기보다는 시민사회, 정치사회에 유비되는 서술적 개념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사회운동 그 자체나 사회운동 조직과 세력이 위치한 장(場)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박정미(2002). 「성폭력과 여성의 시민권: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 사례분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로 조사와 처벌을 한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사건을 계기로 조직 전체가 교훈을 얻고자 함일 것이다. 이는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금 '동지적 관계'를 갖게 하고, 성폭력 사건을 통해 구성원 전체가 성인지적 관점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조직에 대한 믿음에 기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몇 사건에서 드러난 운동사회 내 자정능력의 수준은 그 '믿음'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성폭력 사건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가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조직

적으로 은폐하려는 조직 보위론에 더 무게 중심이 실려 있음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진보 진영 내의 성폭력 및 가부장적 성차별을 여실히 보여주었던 전희경<sup>2)</sup>의 책에서는 “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운동사회에서 추방하는 고유의 매커니즘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안타깝게도 상담소에서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여전히 이러한 분석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 ‘피해자중심주의’는 침묵이 아니라 소통

운동사회 내 성폭력사건을 지원하다 보면 가장 주목하게 되는 명제가 ‘2차 가해’와 ‘피해자중심주의’다. ‘2차 가해’는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성원들의 의식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고 지원하는 조직의 관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가 실제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원칙으로 이어지기에 부족한 면이 많다. 특히나, 운동사회 내 ‘정치’는 이러한 명제가 가진 중요한 전제, 즉 ‘사건의 해결 이후에도,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을 간과하게 만든다.

*“피해자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피해자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아니, 피해자가 왜 거기 갔냐고 어떻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면 2차 가해 아닌가요? 그래서 되도록 조용히 모든 일을 끝내놓고 피해자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피해자가 어*

*디까지 알아야 하는지도 자꾸 헛갈리고, 잘못했다간 이번 민주노총 사건처럼 괜히 줄줄이 불러갈 수도 있고 하니…….”*

-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언제부터인지,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에 있어,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관심을 보이는 일체의 행위는 2차 가해로 이해되고 있다. 극도로 피해자에게 조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하는 것이며 조직성원의 역할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질문하지 않고, 피해자와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주변의 동료들이 2차 가해를 두려워하며 피해자와의 소통을 멈추는 순간, 피해자들은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는 자신의 의지, 다시 함께 일하고자 하는 욕구를 조직성원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정과 상황은 조직 성원들에게 인식되지 않는다. 반면 가해자

2) 전희경(2008), 『오빠는 필요없다: 진보의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들 이야기』, 이매진.

는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받으며, 자신을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도 한다. 가해자와 조직원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는 반면, 피해자의 입지는 점점 축소되어 간다. 애초의 '2차 가해'라는 개념은 조직 내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직성원들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 가해자에 의한 피해만이 아니라 피해 발생 이후 조직구성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 사건의 해결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바로 그 해결을 위해 어떤 과정을 밟는지 등 정치적으로 올바른 일련의 과정을 위한 성찰과 숙고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조직 내의 성폭력이 단순히 가해자의 잘못이 아닌 공동체의 잘못이며, 이를 함께 바로잡기 위해 조직 내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내규에 따른 해결점을 찾는 것인데, 2차 가해라는 개념을 무성찰적으로 적용하여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와 조직성원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중심주의' 또한 '피해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기계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된다. 아래 운동사회 내 성폭력 피해자가 보낸 이메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사건이 발생하면 조직은 즉시 피해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가해자와의 분리라는 약속을 지킨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처리방식이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이후 복직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분리'일 때, 자칫 피해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조직에서 피해자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가해자의 활동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는 어느 순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피해자는 조직 내에서 제도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명분이 주어지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해결되고 있다고 호도되기도 한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조치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조직에서 해주는 것만이 피해자 중심주의로 인식되면서 조직은 조직대로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피해자 중심주의는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과 판단을 문제제기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피해자 개개인들의 모든 요구가 가장 옳다는 기계적 해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인식론적 전환을 위해 공동체 조직원들은 성찰적으로, 진정성으로 사건 해결에 임해야 하며 피해자 역시 그 과정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끔 조직에서 판단컨대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는 난감함을 표할 뿐 피해자와 협상하지 않는다. "왜 피해자와 협상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협상의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말한다. "아니,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해주어야지요. 그게 조직이 할 일이지요."라는 불맨 섞인 답이 생소하지 않다. 사실 이러한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말 뒤에 숨어서 공동체가 맞서야 할 조직의 가부장성을 성찰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제게 휴가를 주었습니다. 피해자니까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몸도 마음도 힘들었기에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에서 제가 휴가를 내고, 정신과를 다니고, 빨리 나아지기 위해서, 빨리 나아서 다시 출근하기 위해 그렇게 애달아 했던 저를 증오합니다. 제가 출근하지 않는 동안 가해자는 사람들로부터 온갖 동정어린 관심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정도 일에 장기휴가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

## 변화를 위한 액션, 심화과정이 필요

최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잠잠하던 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운동사회조직이 가지는 특수성 중 민주성,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 등은 성폭력 발생과 연결될 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 영향이 상당히 기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조직의 도덕성이나 진보성에 대한 타격이 두려워 쉬쉬하거나, 피해자의 입장보다는 조직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만 급급한 것은 여전히 성폭력을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문제를 인정하고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 해결과정에 대해서 모색하는 공동체야말로 자정능력을 갖춘 조직으로서 그 도덕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운동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이제는 성찰이 필요하다. 조직 내 반성폭력 규약이 생긴지 1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믿고만 있던 운동사회 내 성폭력 해결능력을 검증하고, 검증을 바탕으로 한 냉철한 사후대책이 절실한 까닭이다.

민주노총 성폭력사건을 볼 때 성폭력 사건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하는 지원원칙에 관해 운동사회 내

조직은 충분한 논의를 통한 조직의 합의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내규를 통해 원칙은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구성하는 경우의 수에 관해서는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운동사회 내 실무자들은 고백한다. 이처럼 피해자의 권리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피해자는 배제되고 결국 가해자가 살아남는 '피해자 지원'은 이례적인 처리 방식이 아니며 지나치게 소극적인 피해자 지원으로 그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조직의 성찰이 요구된다. 이렇게 열정과 신념만으로는 불가능한 해결이 있다는 것을 운동사회 내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 동료들은 뒤늦게 인정한다.

여성단체가 제시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과 제언」(2009.02.10)은 일반 운동사회 조직에 대한 성찰로도 확장된다. 이는 주요하게 성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규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조직을 저울질하는 조직보위론, 일상적인 성별분업에 기반한 남성중심적 조직문화, 형식적으로 의무화·매뉴얼화 되어 있는 일부 현실성 없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철저한 현실검증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전문기구에 권력을 부여하고 아래로부터의 일상적 개혁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간 어려운 고백들이 있었다. 이제는 그 고백들을 바탕으로 '2차 가해'가 무엇인지, '피해자 중심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부의 치열한 성찰과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운동사회가 주장하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자정능력'은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



# 연대를 위한 이야기

많은 성폭력 문제들이 그렇듯, 비판의 시선과 대안을 만들어가자는 다양한 언행들은 각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성폭력이 발생하고 꼬여가는 과정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냉소하기도 하고 우려하는 마음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발생집단을 중심으로 이름 불리는 운동사회 내 성폭력은 쉽게 외부자와 내부자의 자리를 나누고, 그에 따라 반성하거나 비판하는 역할 구획을 낳아왔다.

그러나 많은 다양한 맥락과 관계 앞에서 이러한 구도는 무력하기도 하다. 예컨대 운동사회가 성폭력의 온상지로 단순분석되거나 냉소될 경우, 피해자의 자긍심이나 맺고 있던 관계들은 어떻게 회복되거나 말해질 수 있을까? 단순화, 일반화의 오류를 넘어 다양한 맥락에 뛰어들어가 성폭력 문제를 만나고 관계 맺는 것만이, 피해경험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을 터. 안과 밖에서 공히 말이다.

사회운동진영 '내부'에서 활동하며 성폭력 사건지원을 해온 두 여성활동가와 만나보았다.



일 시 2009년 8월 13일  
 죄담자 이봉화(진보신당 관악지역 활동가, 이하 A)  
 타리(진보신당 당직자, 이하 B)  
 정 리 오매(본 상담소 활동가)

- A** ‘운동사회 성폭력’으로 통칭되는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불편한 심정이 있다. 예컨대 ‘오빠는 필요없다’는 말이 주는 통쾌함이 있지만, 운동하는 나에게 ‘오빠’가 필요하지 않은지는 10년도 넘었다. 운동사회 안에서 많은 여성활동가들이 고군분투 해왔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나? 내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잘 드러난 적은 없던 것 같다.
- B** 나는 학생운동을 했는데 성폭력 사건들에 실망하여 그만두고 여성단체에서 일했다. 그리고 2년 전 진보정당에 왔다. 조직문화가 달라 적응중인데, 예를 들어 대중적인 정당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하듯 최소한의 동의로도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성폭력 문제에 어느 정도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건지원자’가 되어 보기

**A** 처음으로 피해자 대리인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전업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한 사건이라 소중한 경험인데, 해결과정에서 3kg이 빠졌었다.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생체리듬을 피해자와 같이 했다. 당시에 선배가 “우리 지역의 사건도 아닌데 안 하는 게 어머냐”고 했다. 지금은 그걸 싸잡아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조직보위원인가!’ 분노하면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했다.

**B** 사건담당자가 되면 중요한 판단과 결정은 나에게, 아니면 몇몇 여성위원들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절차는 100%의 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절차에 따라 해야죠”라고 깔끔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같이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처리했던 사건들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반성도 한다. 그런데 이걸 누구와 나눌 수 있나?

**A** 사건지원을 몇 번 해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다. 어떤 분야에서 한 두 번 경험을 가지면 전문가가 되는 알파한 인력풀이 쓸쓸하다. 그러나 실은 관심과 성의를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도 지원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조직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다. 그런 무심함에서 ‘희소한 지원자’는 쓸쓸함을 느낀다.

**A** 이번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을 보면서도 평소 존중해온 여성 리더를 이해할 수 없었다. 어쩌면 여성인데도 저렇지? 그런데 나의 멘토는 내게 “여성이라고 모두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지 말라”고 했다. 여성문제나 성폭력 문제에 관심없는 여성선배들이 무척 많다. 그렇지만 그래도 감수성은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내 평이다. 사건해결은 여성활동가가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느끼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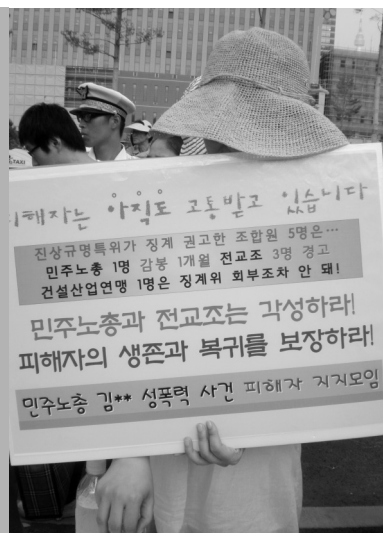
신속함을 포기해도, 진정성 있는 고민

**A** 운동영역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왜?”라고 물으면 자기 언어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본다. 피해자의 편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편에 서는 걸 보면, 대체 어떤 가치관으로 피해자 편을 들었는지 궁금해진다.

**A**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스스로 설명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무조건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욕을 먹더라도 더 용기있는 과정을 보고 싶었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서 지도부가 총사퇴를 정말 빨리했는데, “빨리 총사퇴하지 않았냐”는 말을 자랑하듯 쓰는 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당신들은 그렇게 쉬운가? 묻고 싶어졌다. 사퇴를 하더라도, 진정 이것이 문제다, 라고 처절하게 고민하면서 논쟁한 끝에 그 결론에 도달한 것인지를 묻고 싶다.

**B** 성폭력에 대해 사람들이 쉽게 분노할수록, 그것은 극악무도한 범죄, 순결주의, 여성보호주의와 맞닿은 것 같다. 규약 제정을 하는 경우에도 나서서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걸 반대하면 반 ‘인륜’ 주의자로 보일까봐서인 듯하다. 성폭력 피해자가 낙인 받는 이유와 반성폭력에 일관 동의하는 이유가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A** 예를 들어 가해자 징계의 수준을 정할 때 내부 갈등이 많다. 피해자가 중심이라고 하면 피해자는 언제나 최고수준의 징계를 원할 거다. 그렇지만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을 때가 많다. 내부에서 이걸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느냐가 문제다.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집단적 의지를 느끼느냐, 거기에 피해자의 1차적 치유가 있다.



**B** 운동사회에 있던 여성활동가가 성폭력사건을 경험하면, 당연히 조직을 거리두고 보게 된다. 여성인 자신과, 조직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 오는 거다. 그 계기를 소중히 생각하는가? 피해자로서 알게된 새로운 시각들을 지지하고, 그걸 새로운 동력으로 보는가? 조직에서 그걸 할 수 있다면 피해자는 살아올 수 있고, 그게 명예회복과 조직복귀다. 그걸 잘 하고 있나?

매번 시작점으로  
다시

**B** 성폭력 사건 처리과정을 보면, 이것이 왜 기본합의였는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시판에서 사건 처리결과를 두고, 조직 전체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처리단위 위원 중 누가 '페미' 인지를 찍어내고 그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한편으로는 사건처리 절차에 함께하는 법조인이 '법적' 논리로만 접근하기도 한다. 이것을 똑똑한 가해자들이 '이용' 한다. 주로 가해자들의 권리를 두고 절차적 적법성을 중시하는데,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지?

**A** 100인위의 시대가 10년이 흘렀는데, 그런 방법이 좋은 것인지 다시 구성하고 싶은 마음도 든다. 2차 가해에 대해서 축소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혹자는 2차 가해보다는 명예훼손 개념을 쓰는 게 정확하겠다고도 한다. 성폭력 사건들이 지나가며 우리에게 남긴 상처들이 있다. 그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은 주로 성폭력 사건이 생기면 침묵하는 걸 보게 된다. 반면에 무조건 여성주의를 반대하고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이제껏 만들어진 해결체계 자체를 해체시키는 공격인데, 솔직히 이들과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할지 감이 안 오기도 한다.

운동을  
부정하지 않고  
연대하고 싶다

**A**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 성폭력은 평등한 관계맺음을 가장 심하게 왜곡하는 폭력행위이면서 가장 빈발하는 형태다.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는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지만 수적으로는 대등하지 않나. '마이너리티' 를 고민하는 내게, 성폭력은 중요한 문제다.

**B** 운동사회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여성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조직들도 있다. 운동사회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관계, 특별한 맥락을 모른 채 비판하는 것에서는 연대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다. 동지적 관계를 파괴하지 않는 것, 공동체 내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상흔을 심하게 겪었던 지난 과정을 통해 얻은 결론이라는 것.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다. 피해자와 소통하고 그 경험을 깊이 이해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성폭력 사건을 겪으면서 새롭게 가지게 되는 시각과 동력을 충분히 지지하고, 그것을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름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에 여전히 조직은 수동적이다. 그러면 그 피해자는 또 고립되거나 여성문제는 부문화된다.

**A** 조직 내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망과, 외부와 만나고 싶다는 마음 두 가지가 다 든다. 이 안에 있고 싶으면서도 이 안에 있기 싫은 마음을 어떻게 둘 다 위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시 여성이 아닐까, 한다.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 여성들 간에 서로 만나고, 돕고, 같이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보편적인 경험과 우리들이 처한 특수한 맥락을 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으니, 서로 상담자가 되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싶다. ☺



# 그들은 모르는 우리들의 진실

## - 성폭력 생존자가 진정 바라는 것은

◎ △△자동차 △△지회 언어성폭력 사건 생존자 지현

###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속에 없는 것

노동운동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까? 먼저 대책위나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진상파악에 나선다. 진상조사가 끝나면 가해자와 조직에 권고사항이 결정되고 가해자는 징계를 받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와 조직에 대한 압박, 선전 활동 등이 진행된다.

이러한 도식적인 사건 처리 절차, 소위 '매뉴얼' 속에 피해자 치유에 대한 고민은 빠져있다. 어느 대책위나 피해자 치유를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상정하지만, 사실상 치유는 성폭력상담소나 정신과 등 전문기관에 맡겨진 채로 방치되고,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치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모색한다.

가해자와 상급단위 압박, 선전전, 피켓팅, 토론회 등은 그 내용이 성폭력이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그동안 해온 활동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어렵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치유는 지금까지 해 보지 않은 낯선 영역이라 감이 잡히지 않는다. 조심스럽게 몇 차례 다가가 보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결국 피해자에게 위로나 격려의 말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또 다른 투쟁 일정에 밀려 잊어버리고 결국 피해자에게 미안함만 남는다.

운동사회 내 반성폭력 운동 역사에서 피해자 치유에 관한 고민과 노하우는 축적된 게 별로 없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나고 6개월 동안 상담을 받아온 지금, 내가 내린 결론은 운동판 내부에는 치유의 언어, 치유의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대로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 피해자 치유는 주변 동지들이나 조직이 아닌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정녕, 피해자를 이대로 떠나 보낼 것인가.

### 토론하며 학습하며,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감수성

성폭력 사건이 안건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면 여성주의 학습을 한다고 여성학 책을 읽고, 월례토론을 한다고 '우리 결혼했어요'를 주제로, 성매매를 주제로 토론을 한다. 근데 그 토론 열심히 하는 거 나 치유되는 거랑 별로 상관없거든요? 의식은 변해 가는지 몰라도, 언어와 몸짓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 토론 한 번 덜 해도 좋으니까 힘내라고 문자 한 통 보내고,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보고, 편지 한 통을 써 주는 게 나한테 훨씬 큰 힘이 될 텐데……. 함께 막걸리 한 잔 하자던 동지는 왜 내가 휴식을 해도 연락이 없을까? 동지에게는 그 약속이 그렇게 우스운 것이었다.

처음 상담소에 와서 상담 선생님을 만났을 때가 떠오른다.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저 내 말을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 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이 참 고맙고 따뜻해서 눈물이 났다. 왜 나는 주변 동지들에게서 그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을까? 슬프다. 투쟁가에 나오는 '동지', '동지애'는 현실에서는 없는 걸까?

한 운동단체에서 피해자가 함께 상근하는 동지들에게 지지의 글을 써달라고 사무실에 종이를 붙여놓았는데, 3일이 지나도록 아무도 글을 쓰지 않았고 2주가 되어서야 거의 썼고 마지막까지 쓰지 않은 동지도 있었다고 한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마음은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카페에 현재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했지만, 피해자에게 지지의 글을 쓰는 게시판에는 회원 수만큼의 활발한 글쓰기는 되지 않고, 글 역시 대부분 여성동지들의 것이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운동에서 피해자는 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피해자가 이탈해 가는 사이 남성 활동가들은 여성주의 토론을 하면서 더 훌륭한(?)

활동가로 거듭난다. 그래, 감정노동과 돌봄노동은 노동 운동관 남성들에게는 익숙한 조직화 방식이 아니었지. 또한 우리는 개인의 아픔을 조직적으로 풀기보다는 당연히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문화에 길들여지지 않았던가.

## 빡센 처벌보다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가해자 징계가 미약하면 분노하면서 주먹을 부르르 띵다. 언어성폭력 사건 발생 2년 만에 금속노조 징계위원회는 최근 가해자들에게 ‘경고’로 징계했다. 그런데 가해자에게 높은 징계가 나왔었다면 내 속이 후련했을까? 최근 실형 3년을 받은 민주노총 김\*\*이 만약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면 피해자의 모든 아픔이 한꺼번에 날아갔을까? 피해자가 진정 원하는 것이 빡센 처벌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노총 관련자들은 이번 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토론하는 것’ 자체를 2차 가해로 규정하며 축대밭으로 만들었다. 사건 발생도 그렇지만 2차 가해에 대한 이런 저열한 인식은 그동안의 수많은 피해생존자들과 여성동지들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 2차 가해가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가? 모두 입에 미제 자크를 채우고 징계와 규율 뒤로 자신들의 속마음을 숨기는 것이 피해자가 바라는 것일까? 김\*\* 성폭력 사건은 그동안 노동운동 진영이 해온 형식적인 사건 ‘처리’와 ‘규율’ 만으로는 결코 성평등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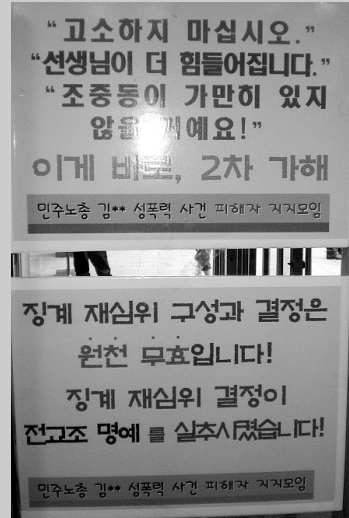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문화는 어떻게 바뀌는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가? 조직 문화의 혁신은 개인의 자기성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평가’에는 익숙하지만 ‘성찰’은 별로 해 본 적이 없다. 선전하고 선동하고 교육하는 글은 수두룩하게 써봤지만 성찰하는 글쓰기는 해 보지 않았다. 나는 가장 가까웠던 남성 동지 3명에게 <오빠는 필요없다>와 <남자의 탄생>을 읽고 자신의 삶과 운동을 여성주의적으로 성찰하는 글을 써 달라고 했다. 고맙게도 2명의 동지가 글을 써 주었고, 쓰지 않은 1명의 동지 때문에 울

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그 동지에게는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하는 ‘자서전 쓰기’ 참가를 제안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 동지들이 자기 성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했던 운동이 바닥이 아니었구나 싶어 숨통이 조금 트였다.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 연애, 운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조직 내에서 또 대공장 현장에서 여성동지들을 대했던 자신의 태도에 대해 꼭꼭 눌러 써내려간 글. 그냥 형식적인 반성문, 자비서가 아닌 자기 언어로 쓴 자기 성찰. 나에게서 그러한 자기 성찰의 노력이 가해자 징계보다, 어떤 빡센 규율보다 소중했다. 성찰하며 변화하는 모습 자체도 보기 좋았고, 나에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힘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자존감이 회복된 것 같다.

## 피해자가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피해자의 감정은 상승과 추락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피해자가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도 정당하다.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피해를 경험했다는 이유로 존재 기반을 잃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피해의식을 갖지 않을 수 있는가. 자신이 몸담았던 운동에 대한 회의와 혼란, 동지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몸부림친다. 그렇게 분노하는 것조차 정당한 것인지 검열하면서 죄의식에 시달린다.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일 것 같은 때도 있었다. 피해자의 분노와 배신감이 큰 만큼, 그 뒷면에는 운동에 대한 열정과 조직에 대한 사랑 또한 크다는 것을 동지들은 헤아릴 수 있을까. 동지들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만큼이나 기대와 신뢰 또한 컸음을 동지들은 알까. 지겹게도 떨쳐지지 않는 피해의식.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의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사건화할 때



2차 가해자들의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를  
인정하라!  
민주노총 진상규명 특위  
보고서를 준용하라!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거제도임

전교조는 성평등하고  
반성폭력 운동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거제도임

피해자는 이미 온 몸으로 운동에 메시지를 던지는 투사이다. 피해자의 미친년같은 울부짖음은 어떤 훌륭한 여성학 책보다 동지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남기고, 피해자가 매일 밤 흘리는 맑은 눈물은 운동을 정화시킨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보는 운동과 조직은 이미 예전의 그것이 아니다. 현재 상태는 물론 지난 운동의 역사까지 피해자는 재평가하게 된다. 피해경험을 통해

알아차린 진실을 통해 그녀는 누구보다도 조직의 썩은 부위에 대해 날카로운 메스를 댈 수 있고 건강하고 선진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그러하기에 피해자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뿌린 씨앗이 싹트고 꽃 피우도록 물과 거름을 주는 것은 동지들의 몫이다. 피해자가 가진 분노의 에너지가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동지들에게 달려있다. 어떻게?

피해자가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왜 분명히 펼쳐 일어나지 않느냐고 피해자를 종용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해해야 한다. 피해자가 울부짖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가 이야기할 때는 들어주고 답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앞에서 무기력하게 고개만 떨구고 있지 말고(그게 제일 싫다), 피해자의 언어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감정이입하고 적극적으로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노력하는가가 피해자에게 힘을 준다. 지금까지 노동운동에서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는 시도하고 훈련해야 한다. 세심하게 피해자의 감정의 곁을 읽고 보살피는 데 쏟는 노력은 결코 무가치한 노동이 아니다. 피해자 대리인 역할에 최선을 다한 동지들은 일상적인 정치활동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고 성숙한다. 지금 당장 노동운동 판에서는 이런 능력이 인정받을 수 없어 시간이 아까울지 모른다. 하지만 혁명

이 일어나면 이런 감수성이 똑딱 만들어질까? 대안 사회로 가는 길은 적들에 대한 무자비함만큼이나 동지와의 친밀하고 평등한 관계와 감수성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 치유는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필요한 것

치유는 피해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실, 치유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쉽게 변하지 않는 세상에 맞서 고군분투해 온 나에게도, 조직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당신에게도 치유는 필요하다.

또 자기성찰은 단지 여성동지들이 운동판에서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자기성찰이 수반되지 않는 운동은 진정 행복할 수 없기에, 궁극적으로는 나와 나의 운동을 위한 자기성찰이 되어야 한다. 나는 왜 운동을 시작했는가? 권력에 탐이 나서 혹은 한몫 챙겨서 편하게 살아보려고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없다. 차별에 대한 분노로부터,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평등한 세상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는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체제 속에서 체제와 싸우지만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에서 체제와는 다른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권력에 맞서고자 운동을 시작한 내가 또 다른 권력으로 내 옆의 동지를, 가족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때에도 신념을 지켜온 동지라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혹시 굶고 썩은 부위를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자기성찰이 없는 운동, 또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운동은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하더라도 그건 잠깐의 행복, 반쪽짜리 행복일 뿐이다.

완전한 치유도, 치유의 종착점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경험에 휘둘리면서 자신을 향해 휘두르던 칼을 내려놓을 때, 사건 당시 겪은 무력함에 남은 인생을 종속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이 자신에 대한 성찰을 시작하고 지금 용기를 내어 피해자에게 손 내밀 때, 우리 운동은 한 걸음 전진할 것이다. ☺

# 너무나 급진적이어서 지극히 무기력한, 어떤 판결

◎ 사무국장 오매

지난 6월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한 법정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정에 섰던 ‘피고’ A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연신 고개를 저었다. 이 사건을 소개해야겠다.

2008년, 촛불시위로 온 시민이 거리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항의하고 있을 때, 경찰청 지침에 따라 연일 과잉진압을 해야 했던 서울 606전경대 소속 한 전경이 전의경 제도와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육군으로 전환해줄 것”을 6월 12일 신청하였다. 이후 보복성 불이익이 이어졌다. 근무지 변경 명령, 근무태만 영창 15일, 영창이 끝난 지 세 시간 후 공적제재 의결된 2개월간의 외출·외박·휴가·면회·인터넷·전화 금지 및 생활실 대기 조치, 보호대원 및 보호직원 각 2인 상주 및 감시 배치, 구타유발 행위로 부대원 물의야기 혐의 2차 공적제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 이후 2차 영창 15일 징계……. 그리고 6월 20일, A씨에 대한 ‘강제추행’ 죄목의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구속수사’도 청구됐다.

A씨는 동성애자로 자신을 커밍아웃한 바 있다. ‘강제추행’ 고소장을 낸 대원 중 이모씨는 당시 중대의 왕고참이었고, A씨와 허물없이 지내기도 했던 상관이다.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나모씨와 구모씨는 2007년 8월에 있었던 일을 냈는데, 당시 A씨는 신입대원이었던 이들과 대화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상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직급이었다. 이들은 어떻게 A씨를 고소하게 되었을까. 606전경대는 A씨가 육군전환배치신청을 제출한 지 닷새 후, A씨에 대한 일제 소원수리를 실시하였다. A씨에 대하여 불만이나 의혹 걸어볼 거리를 다 모은 것이고, 지휘관들은 이에 대해 진술조사면담을 실시했다. 왕고참 이모씨는 법정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했지만, 구모씨의 경우 “소대장님과 경찰관이 필요하

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모씨는, “가벼운 팔짱이나 스킨십은 다른 대원들도 서로에게 다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A가 커밍아웃하기 전에는 추행이라 느껴본 적 없었다”고 덧붙였다. 나모씨와 구모씨의 경우 같은 날 같이 추행을 겪었다고 했는데 당시 A씨는 행정실에서 근무중이었고 근무일지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근무일지는 형식적’이라는 부대 지휘관의 법정진술이 받아들여져 부대 내 ‘공문서’의 증거능력은 간단히 상실되었다. A씨가 어떻게 자기 자리가 아닌, 구석 다른 대원의 자리에 끼어들어 타인에게 목격되지도 건들여지지도 않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인 상태였다.

이쯤 되면 재판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일사천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검찰은 기소하고, 부대 측 참고인이 계속 법정 진술하고 수많은 경찰, 부대측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피고가 경찰과 검찰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비하하며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고 검사가 지속적으로 경고의견을 제출했던 공판과정의 끝. ‘독립적인’ 재판부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재판부가 법정에서 발표한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상황상 가능했다고 보이고, 여러 대원이 법정 진술하였고, 나모씨와 구모씨는 신병으로서 고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진술이 일관되었고, 이모씨의 경우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강제추행은 개인의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켰냐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의사를 제한할 정도에 달하지 않아도 되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또 하는 것은 명백히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되어” 따라서 강제추행죄 유죄.

“그러나 고소인들이 사건 10개월이 지나서 한꺼번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피고인에 대한 여러 불이익이 이루어 지던 시점에 제기된 것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결정.

**성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전에 없이 급진적이었다. 추행이 과연 가능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매우 상세한 반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이 기각하고 ‘충분히 가능했을 법한’ 쪽으로 과감히 해석하였다. 또 피고인이 마음껏 운신할 수 없는 직급이었음을 고려하기보다, 고소인들이 얼마나 저항할 수 없는 위치였는지를 절대적으로 고려하였다. 폭행과 협박은커녕 의사를 제한할 정도에 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고소인이 전경대 내 상관이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면 강제추행이라는 것, 어떻게 의사표현을 했더라도 거부의 뜻이었으면 절대적으로 그 의사에 반하면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 이렇게 되면 어찌되는 것인가. 이제껏 우리가 보아왔던 수많은 ‘엄격한’ 판단들, 피해자에게 왜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으며 화간이었던 것 같다고 가해자에게 무죄 선고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무고죄로 기소했던 사건들, 가벼이 만진 것에까지 형사처벌을 동원하는 것은 과잉형벌이 아니겠느냐며 고소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들은, 이제 뒤집어지는 것인가?

**여성 피해자가** 권력적인 남성 가해자에 맞서 싸웠던 수많은 사건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판결이 이 사건에 등장한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성폭력에 대한 급진적인 판결이 나왔다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의 ‘고소인’ 들은 이번 판결로 성적 수치심이라는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과 위로를 받았을까? 이 급진적인 판결은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순서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폭력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판에 놓여 있는 개념인지 내가 겪어온 소회를 나누고 싶다.

**남성중심적** 사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지지하기보다 기득권력의 이

익을 대변해 왔다. ‘남성들의 성욕’이라는 신화를 옹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우발성을 강조해왔고, ‘남성들의 성적 취미’를 정당화하기 위해 여성이 먼저 유혹하고 유발했다고 덧씌워왔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는 ‘어떤’ 권력을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갑작스레 안면을 바꾸어 ‘피해자 중심주의’를 빼앗아 들었을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판결을 마치고 법정을 빠져나오던, 경찰청 고위 관료들로 보이는 양복 입은 몇 분 신사들의 만면의 웃음과 그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너무나** 급진적인 판결,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옹호를 내세운. 그러나 커밍아웃한 이후에, 전경제도에 대해 문제제기한 이후에 부대 내에서 수많은 괴롭힘과 왕따를 겪어야 했던 A씨는 이번 판결에 의해 가해자가 되었다. 군대 내 동성애자가 처해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더해, 군대 권력에 저항하고 문제제기하는 자에게 언제라도 성폭력 혐의를 씌울 수 있는 판례가 생겨버린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무기력했던 판결.

**이 사건**의 항소심도 역시 같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2심에서도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우려된다. 급진적인, 세상을 뒤집는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지만 도저히 만나볼 수 없어 고통이 심해가는,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스쳐간다. ☹



사진 : 오마이 뉴스

# 일방적인 행정전산화 시책,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까?

◎ 소장 이윤상

집에 강도가 들이닥쳐 재산상의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당장 신고하지 않을까? 물론 애써 신고했는데 강도를 잡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도 생기고 보복의 두려움도 따를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거 아니냐?”, “강도가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한 거 아니냐?”, “아는 사이였다던데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며 말도 안 되는 의심과 비난을 할까봐 신고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낼 이유는 없을 것이다.

## 비밀보장이 필요한 이유

18년 전, ‘한국성폭력상담소’ 간판을 걸고 반성폭력운동을 시작했던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었다. 피해를 입으면 바로 경찰서를 찾아 신고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사회라면, 굳이 ‘상담소’를 열고 따로 피해생존자를 만나고, 의사와 경찰도 아닌 활동가들이 의료적·법적 과정을 함께 지원할 이유는 애당초 없었을 것이다.

사회의 시선과 비난이 두려워 그 어디서도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풀어놓을 곳이 여기밖에 없었기에 ‘상담소’는 필요했다. 함께 사는 가족이 가해자여서 집조차 그녀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주거공간(쉼터)이 필요했다.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의심과 비난에서 자유로우며, 주변인과 사회의 곳곳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공간. 이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비밀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웠고, 지금까지 지켜왔다.

## 효율성과 인권감수성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관의 회계, 세무, 인사, 후원금, 서비스 이력 등을 관리하는 온라인 기반 전산 프로그램이다.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부 행정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크게 증진시키고자 전자정부화 시책이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한 이런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는 아니며, 주로 공무원들의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전산화를 통해 행정업무가 보다 편리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정보를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정보의 관리·가공 및 이용이 훨씬 손쉬워지기 때문이다.

성폭력 피해자 정보 또한 한 곳에 모아놓고 쉽터에 입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기존 수급자인지 아닌지,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았는지, 피해자 치료비 지원을 받았는지 등을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아마도 정부가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는 생계비나 치료비 이중수급의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효율이나 편리만이 세상 모든 일을 처리하는 최우선 기준은 아니다. 비밀보장이 중요해서 경찰이 아니라 상담소를 찾은 이들, 가해자의 눈을 피해 쉽터로 몸을 피한 이들의 정보가 반영구적으로 남고, 그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복제하거나 유통할 수 있으며, 유출되기도 쉬운 전자 방식으로 집적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거나 전송·복제하기 어렵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문서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이 맞을까?



행정효율화를 통해 시간을 아끼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데 있어서 보다 높은 인권감수성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모든 것을 무조건 전산화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분노를 넘어 등골이 오싹해진다.

재정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것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 및 쉼터 일부는 1년에 5,9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쉼터 생활인들은 시설수급자로서 의료비·생계비 등을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투입된 국가 재정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는 1년에 몇 차례씩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회계서류·운영실적·현장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전산 프로그램에 깔끔하게 입력한 데이터여야 투명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되려 2~3년 단위로 담당업무가 변경되고 복지나 여성폭력피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받지 않는 공무원이 민감한 정보를 전산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될 때, 정보 유출이나 횡령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다.

쉼터 생활인의 이증수급 문제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국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관련 쉼터는 150여 곳이 있으며, 한 쉼터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이 10여명 안팎이다. 이 입소인 수가 너무 많아 문서로는 이증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 그래서 갖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수집하는 것이 정말 불가피한 조치란 말인가?

## 아직도 처음부터

18년 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처음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비장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성폭력특별법도 만들었고, 국가는 예산을 들여 부분적으로나마 의료적·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1366, 윈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와 같은 공공 서비스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신고율은 저조하기 짝이 없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는 수사관과 법조인들의 태도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는다. 용기 내어 피해를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주요 직책을 맡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고 하면, '구만리 같은 사람의 앞길을 막는다'며, '너는 왜 행동을 조심하지 않았냐'며, '너 때문에 조직에 분란을 만들었다'며 난리다. 결국 그 조직에서 퇴직, 휴직, 휴학, 이사, 유학 등으로 도망가고 피해야 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4대강 사업에 허비되는 예산은 22조이고, 향후 5년 간 줄어들 부자들의 세금은 96조라고 한다. 이런 어마어마한 스케일 앞에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해보지도 못했다. 우리는 그저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제 국가 운영비 지급이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를 견디며, 우리가 이 운동을 왜 시작했는지, 이 일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권감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전산화 시책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을 뿐이다. 18년의 상담소 역사가 뼈아프다. ☹

## 수의 치유비법 1 '노출'

◎ 水

"말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직 말 못하겠어요. 나중에 말하면 안 될까요?"

이 말은 내가 상담을 받게 된 이후에 여러 상담자를 만나면서 제일 첫머리에 하는 말이 되었다. 나는 나를 돕겠다는 상담자를 만날 때조차 내 이야기를 들을만한 사람인지 철저히 따지고, 잦다. 상담자까지 고르고 골랐는데 친구들은 오죽했을까? 그래서 나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단숨에 재 끼고, 상당히 가려서 사귀는 사람으로 오해 받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오해가 차라리 낫다, 내게 아빠가 한 짓을 폭력의 문제가 아닌 성의 문제로 오해받는 것보다는.

### # 귀가 있는가?

"저 아빠한테 강간당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부터....."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집을 뛰쳐나와 찾아간 교수한테 '강간'이라는 단어를 소리 내어 처음 말했다. 그런데 그 교수는 엄마와 통화를 하고, 몇 마디 나눈 후 "다시는 너한테 그러지 않겠다는 구나"라고 하며 엄마를 불러 나를 집으로 데려가도록 했다. 병신 같은 년! 처음으로 다른 사람한테 말했는데, 도움도 청했는데..... 나는 다시 집으로 끌려가 그놈에게 더 악랄하게 그 짓을 당해야 했다, 그년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 아빠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이도 즐긴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 한다, 미친년.

"강간"이 소리가 되어 나왔던 첫 노출은 그렇게 잔인한 오해로 끝났다.

사실 그 여자에게 말하기 전 엄마는 그동안 나한테 있었던 일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걸 기습적으로 나에게 확인했다, 아빠가 아닌 나에게.

대학교 1학년 여름, 엄마와 대중목욕탕을 갔다.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이곳 대중목욕탕뿐이었다. 아빠란 사람은 내가 엄마에게 뭐라도 말할까 싶어 단둘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너, 아빠가 그랬지?"

'그랬지' 라는 표현으로 모든 게 다 이해되는 상황이었다. 전혀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나의 상처가 노출되면서 갑자기 눈앞이 하얘졌다. 더운 목욕탕이었는데도 소름이 온몸을 스쳤다. 옷이라도 입은 상황에서 이야기하지 싶은 이상한 수치심에 사로잡혔다. 엄마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끌고 싶었던 나는 방금 양치질을 했던 칫솔로 머리빗에 낀 때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나의 생각은 통했다.

“야, 더럽게 무슨 짓이야?”

엄마는 얼굴을 찡그린 채 짜증스럽게 말했다. 이게 더러운 짓일까? 아빠란 놈이 나에게 한 짓이, 또 자신의 남편에게 딸이 성폭력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딸을 ‘아빠 붙어먹은 년’으로 부른 그 짓이 더러운 게 아닌지 묻고 싶었다. 아니 엄마의 “더럽게”는 아빠란 사람과 나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처럼도 느껴졌다. 그놈이 더러운 건데. 엄마는 위로의 말이나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남편이 바람 피우는 현장에서 상대방 여자를 잡아 취조하듯 몇 마디 따져 묻고 말이 없었다. 엄마는 목욕탕을 나와 옷을 입는 동시에 나에게 대해 알게 된 것도 옷 속으로 숨긴 듯 집에 와 다른 가족들 앞에서 잠잠했다. 노출된 상처 깊은 곳을 헤집고 소금을 한 주먹 쑤셔 넣고 쳐다보는 듯 했다.

나는 그때 알았다, 노출은 상대방을 보아가며 해야 한다는 걸, 들을 귀와 마음이 있는 자인지 철저히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노출이 내 상처를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 # 하고 싶은가?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노출하는 이야기들의 수위가 높아갈수록 내 가슴은 더 세계 뛰어했다. 교회 수련회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 보는 것이라 놀랍기도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집단상담도 경험해보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성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것이었는데 이걸 달랐다.

“할까? 말까? 해도 괜찮을까? OO야, 하고 싶니?”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강당에 등글게 앉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씩 돌아가며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성폭력문제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는 집단도 아니고, 교회로 돌아가 계속 얼굴을 봐야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3박 4일이 걸렸다. 마지막 날 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있었다. 나는 계속 망설이다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내 속에만 담아두기 너무 힘들어서 나누고 싶어요.”

당시 참여자들 중 가장 마지막에 말하기 시작해 꽤 늦은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집중해서 내 이야기를 들었다.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이야기를 나눴던 중 가장 아픈 문제였는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친 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울음소리와 비명 소리가 터져나와 예배당 안에서 엉켰다. 나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내게 있었던 일들을 이

야기하고, 나의 치유와 용서를 위해 기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고 싶다는 소망도 말했다. 교회 친구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었다.

교회로 다시 돌아온 후 나는 약간 걱정이 되었지만 그 일은 소문이 되어 들지 않았고, 교회 친구들은 부담스럽지 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지 싶다. 사실 이러한 자리에서의 노출은 한 번 보고 말아버릴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보아야 하는 것, 그들은 나와 같은 성폭력문제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다는 것 등 다양한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 이런 경우 말하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이 영 아니었다 하더라도 움츠러들지 말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성폭력만 말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없이 내가 말하고 싶은 대상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때 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해낸 느낌이었다.

그래, 그렇구나. 상대가 들을 귀가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싶은가? 어떻게,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가?'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인 대로 말하게 될 것이고, 그 인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테니 말이다.

교회 수련회 이후 나는 성폭력문제만 다루는 집단이 아닌 사이코드라마 워크숍을 신청했다. 워크숍 첫날 다들 너무 잘난 사람들이라 부담스러웠다. 교수, 의사, 전문 상담가……. '도대체 이것들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걸 듣고 난리야? 자기문제 풀어보고자 온 사람들 맞아? 이거 기교 좀 배워서 상담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냐? 재수 없어, 난 내 문제 좀 이야기하고 풀어보고 싶어서 왔는데.'

뼈땀한 내 마음은 일단 다른 이들의 사이코드라마를 지켜본 후 내 드라마를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결론지어졌다. 내 드라마 순서를 맨 나중에 미루어두었다. '니들이 양말 벗으면 나도 양말 벗을 거고, 팬티 벗으면 나도 팬티 벗을 거야.'

몇 주 동안 진행되고, 밤새 술도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었다. 사이코드라마는 점점 깊은 자기 이야기들로 들어가고 있었고, 밤샘 술자리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어라, 저것들이 속옷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결국 내가 사이코드라마를 하던 날 밤.

아빠 역할을 맡은 사람은 이야기가 전개되어가면서 점점 사색이 되었다. 나도 그건 마찬가지였다. 출지에 가해자가 된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쓰러져 아무 것도 하지 못했다. '악' 소리조차 내지리지 못하는 나를 보고 디렉터는 사이코드라마를 중단시켰다. 그날 저녁 프로그램 일정은 모두 중단되었고, 같이 하던 참가자들은 그날 보고 들은 내용을 다 지우려는 듯 술을 마시고 또 마셨다. 그리고 함께 울며 아파했다. 같이 사이코드라마를 하면서 '왜 채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사과나 씹어 먹을까?' - 그때 나는 다른 사람의 사이코드라마가 절정을 향해가고 있을 때면 한쪽에서 '홍, 저게 힘들다고 지금 저 지랄을 떠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

사과를 우적우적 씹곤 했다 - ‘재는 왜 이렇게 끝까지 자기 드라마를 못하고 뒤로 미루나’ 싶었다 고 했다. 그러나 디렉터는 나에게 따끔한 한 마디를 했다.

“자기 상처의 깊이에 간혀 뭘 저걸 가지고 힘들다고 난리야?” 그런 생각을 넘어설 때 너는 진짜 멋진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거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상처로 아프고 힘든 거지, 니가 제일 힘든 건 아니다.”

그때는 그 말이 듣기 싫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지금까지 그 말이 떠오르는 걸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도움도 되는 말 같다.

혼자 훌쩍훌쩍 벗어 제끼는 게 노출의 능사는 아니다. 말하고 싶은 나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함께 하는 이들은 어느 수위에서 서로를 공유하고 싶은지 살피지 못하게 된다. 나만큼 다른 이들도 중요하다. 다른 이들은 얼마나 벗는지, 그걸 살피가며 노출의 수위를 조절하는 건 나와 함께 다른 이를 배려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너 양말? 나 양말, 너 팬티? 나 팬티” 이 방법은 좀 치사해보여도 서로 간에 상처를 덜 주고받을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말 벗는 사람 앞에서 팬티를 벗고 싶다면 스스로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하면 되지 싶다. 지금까지 나의 경험으로는 상대방의 반응보다 더 중요했던 건 말하고 난 후의 내 반응이었다.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내가 괜찮으면 괜찮다.

노출 후 중요한 것은 노출 후 ‘내 마음은 어떤가?’ 라고 생각한다. 내가 시원하고, 편안한 것 만큼 중요한 건 없다. 노출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두는 게 좋은 것 같다. 적어도 나는 그랬다.

몇 년 후 나는 ‘치유하는 글쓰기’에 참여하여 내가 그동안 말해온 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말하기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글쓰기는 나 자신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한 과정 같다. 글쓰기를 시작하면서부터는 혼자 많이 울었고, 써 놓은 글을 보고 다듬으며 내 경험에 대한 나의 생각도 조금씩 다듬어져 갔다. 입에서 소리가 되어 공간 속으로 흩어지던 나의 생각들이 활자가 되어 종이 속에 차곡차곡 정리되어 갔다.

말하기보다 더 세밀해진 글쓰기, 성폭력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들은 내게 이상한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그럼에도 나는 내가 당한 일들을 소상히, 낱낱이 표현하고 싶었다. 너무 수치스런 기억으로 내게 새겨진 것들은 여전히 말이나, 글로도 표현하지 못한다. ‘내가 느껴야 할 수치심이 아니다, 그 높게 느껴야 할 수치심이다’ 나에게 아무리 주문처럼 외워주어도 수치심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그 울음 같이 남아 있었다.

말하기보다 목격해진 나의 글쓰기는 노출의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일기처럼 냇두리처럼 시작된 글쓰기에서 시작해 좀 더 다듬고, 살을 붙여 나는 지금의 ‘나눔터’ 글을 써오고 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시작한 것이다. 나의 글을 읽은 이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한번 쏟아내는 소리로서의 노출이 아닌, 정교하게 내가 겪은 일에 대한 나의 생각들, 나의 반응들을 정리하면서 나의 노출은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나의 글을 읽은 이들도 생각하며 노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 휴가를 쪼개어 원고를 쓰는 지금 나는 결코 나에게만 집중하지 않는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자꾸 신경 쓰여 고치고, 다듬고, 지웠다, 썼다를 반복하고 있다. 단순히 잘 썼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되더라구요’라는 민간요법을 말하고 있으려니 어려운 것이다. 나에게게는 유용한 방법이었지만 다른 이들이 그냥 막 써보다 더 아파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먼저 슬슬 걸어오시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한번 슬슬 자기만의 길로 여기 와보라고 권하고 싶은 거다, 그 정도다.

9년 동안 꿈꿨던 날갯짓의 상처는 다양한 노출을 통해 그렇게 나의 새살이 되어 돌아 올랐다. 나눔터에 ‘수의 이야기’를 연재하면서 나는 좀 더 단단해졌고, 나의 문제를 이야기로 나눌 때 내 글을 가지고 나누기도 했다. 말보다 훨씬 편안하고, 과거에 묶인 내가 아닌 이런 글을 공유하고 있는 현재의 나를 보여줄 수 있어 좋았다.

나의 상처를 노출하는 건 단순히 상처를 열어 보이고, “마이 아파”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상처에 앉은 딱지와 이미 새살이 돌아 불룩하게 솟아오른 나의 일부를 보여주며 “이 약을 써보세요, 이런 방법이 참 괜찮네요”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글을 통한 노출이 이러한 단계로 건너가게 해준 것 같다.

### # 편안한 관계부터 시작하는 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아빠란 인간에게 그 짓을 당한 후 하나님께 처음 했던 말이다. 엄마, 외할머니, 오빠, 남동생들에게는 왠지 창피해서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처음으로 진짜 속 얘기를 시작했다. 그 새끼한테 당한 날이면 잠자리에 누워 울면서 기도를 하다 잠들곤 했다. 몇 번은 그 새끼가 기도하지 말라고 때리기도 했다. 기도하고 싶어도 너무 지쳐 울다 잠들어버린 하루는 꿈에서 내가 교회에 혼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도 했다. 현실의 나는 방언을 못하는 데 신기했다. 내가 너무 힘들니까 내 속의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나 싶었다. 아무튼 나는 아무에게도 입도 뻥긋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미주알고주알 말하고 있었다. 그냥 힘들다고만 하지 않았다. ‘이런 악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 새끼 벌 받게 해주세요, 저 미친 새끼, 개새끼, 내가 찢어죽이고, 말려 죽일 테야(드라마 토지에서 여자 주인공이 하던 대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병신, 집 나가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품짖도 못하는 새끼가 집에서만 지랄이야’ 등등 다양한 욕을 하면서 내 속의 분노를 격렬하게 뽐내고 있었다.

하나님도 맞장구를 쳐주시는 듯 욕하면서 전혀 죄책감이 들지 않고 신이 났다. 욕을 하고 나면 내 속이 시원하고, 창피하지도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았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는 종이에 그놈에 대한 욕을 마구 쓴 다음에 찢어버리기도 했다.

어찌되었든 그놈이 내 속을 힘들게 하고, 썩어들게 할 것 같은 건 죄다 내 밖으로 끄집어냈다. 계속되는 성폭력 상황에서 자포자기도, 자책도 않고 혼자 힘들어 하며 주저앉지도 않았다. 가해자인 그놈을 미워하고 마음껏 내 속 말을 할 수 있었던, 혼자만의 노출의 시간을 가진 거다. 그 시간을 통해 나는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 깊은 곳에서까지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 괜한 죄책감도 갖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가출한 이후에 아빠였던 그 사람을 양가감정 없이 고소도 할 수 있었으리라. 나는 언제부터가 그놈과 살아야하는 이 지옥에서 벗어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9년 동안 그 새끼에게 얻어맞고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건, 내 문제를 죄책감 없이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9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집을 나와 혼자 지내며 교회에 다닐 때도 나는 나의 아픔의 치유를 소망한다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야기했다. 밤새 '하나님' 만 속삭이며 울며 기도하기도 했고, '아파요' 란 말만 하기도 했다. 내가 그놈과 살 때 제일 가까워서 내가 하던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니 과거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실 테고, 그래서 그냥 참 많이 울었다. 몇 날 며칠을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다. 울기만 해도, 이런 저런 설명 안 해도 내 속을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편했다.

사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부담스럽다고 도망가지 않을까? 창피한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등등 오만가지 생각을 해야 해서 불편하기도 하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어떤 상처도 주거나 받지 않아도 되었다. 사람들과 말할 때처럼 이 눈치 저 눈치 살피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것도 편하고 좋았다. 언제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지속적으로 노출해도 지치지 않는 대상은 진정한 힘이 된다. 이러한 길고 긴 깊이 있는 노출의 과정이 있었기에 편하게 사람들과도 나누게 되었지 싶다.

## # 최근의 노출

가장 최근에 말로 내 이야기를 노출했던 건 남자친구에게 었다.

"나 아빠한테 강간 당했어."

"OO, 잘 컸네요."

작년 여름, 사귀지 말지를 결정하려는 시점에 그에게 대뜸 "강간"을 말했다. 왜 그렇게 짧은 문장으로 "강간"을 넣어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말하고 싶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놀라서 도망갈 사람이면 시작하기 전에 보내고 싶었다. 내가 '나눔터'에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말하고, 나의 글도 보여줬다. 그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잘 컸네요' 라고 하고, 따뜻한 눈으로 나를 보며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인지 몰랐다고, 밝고 당당해서 깊은 상처 있는 사람 같지 않다고 했다. 나중에 내가 썼던 글들을 모아 책을 내고 싶다고 했더니 자기도 응원하겠다고 했다. 지금도 내가 쓰는 글들을 읽고, 같이 이런 저런 의견을 주고받기도 한다. 나에게 있었던 일을 불쌍해하지 않고, 그 일을 잘 겪어낸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다. 가까운 사람에게 편안하게 노출할 수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다. ☺

■ 꼭 기억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수의 처방전'이라는 사실이다. 상처를 노출하는 게 나에게서 도움이 되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더 힘든 이도 있을 수 있다. 각자 자신만의 비법을 찾고, 고민하고,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상담소 친구들도 말한다, 나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들을 귀와 마음을 가진 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참 감사하다. 당신 주변에도 들을 귀와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 Diary

## 열림터 다이어리



열림터 식구들은 무더운 여름 방학을 보내고, 개학과 함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학 때보다 3시간은 앞당겨진 기상시간,  
 그 사이 작아진 교복, 밀린 방학 숙제 등을 이겨내느라 몸과 마음이 바쁘지만,  
 모두들 언제 놀았냐는 듯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방학이 끝나기 전에는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망상 해수욕장으로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캠프 때는 정말 신나고 재밌게 놀았는데, 벌써 예전 일처럼 느껴지니 이것 또한 신기할 따름입니다.  
 캠프 이야기는 열림터 블로그에 올라와 있으니, 함께 읽고 보며 재미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리  
포터  
survivor's vo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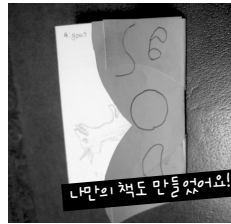
### ▶ 달빛시위 교육 및 참가



### ▶ <아트>관람



### ▶ 성교육



### ▶ 우주박물관 체험



[편집자 주] 이번 열림터 달빛시위 참가는 특별한 리포터와 함께 했습니다. 두나 쌤과 함께했던 달빛시위 퀴즈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춘 덕분에 joora가 리포터로 선발되었습니다. 못하겠다고 투덜투덜하였지만, 달빛시위 내내 카메라를 손에 쥐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글은 joora 리포터의 보고서입니다.



## 달빛시위! 달빛은 없었으나 찬란했다!

◎ joora

2009년 7월 17일 오후 6시. 우리들은 보라색을 가진 어떤 것을 각각 하나씩은 가지고 집을 나섰다. 이유는 바로 오늘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달빛시위'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악천후임에도 연기되지 않은 데에 내심 의아해하며 달빛시위가 열릴 청계광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청계광장에 도착하자 이미 달빛시위는 시작되어 있었다.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빗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에게는 새로운 광경이었다. 나름대로 버스 안에서 시위현장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었다. 피켓을 들고, 머리띠를 매고, 대표 한 사람이 나와서 확성기 들고 구호를 외치면 나머지 사람들도 따라하는(심지어는 머리 꺾는 장면도 상상했음) 장면이었는데 무대에서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축제 분위기가 따로 없었다. 예상과 다른 광경에 나도 모르게 흥이 났다. 리듬도 타졌다. 얼른 그곳에 참여 하고 싶어서 발걸음을 빠르게 움직였다. 버스에서 했던 지겨운 상상들은 저 멀리 사라져 버렸다.

퀴즈 게임을 통해 얼떨결에 리포터가 된 나는 일단 리포터의 일을 수행해야 했다. 그날 나의 임무는 사진을 찍는 것이었는데, 좋은 사진을 구하려면 일단 많이 찍고 봐야 한

다는 거북 샘의 조언대로 보이는 것은 무작정 찍고부터 봤다. 무대를 찍어야 한다는 핑계로 무대 코 앞까지 간다는 무대를 집중해서 감상할 수 있었다.

한 여자가 우산을 쓰고 무대 위로 올라왔다. 그녀는 삼성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이런 데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던 그녀라고 했다. 그녀가 말하는 그 일은 직장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주위 사람들 모두 그녀에게 책임을 넘겼고 모른 체 하더라고 했다. 그 후 회사에서는 자연스레 왕따를 당했다고, 그런 와중에도 결근 한 번 안 하고 8년 째 꾸준히 회사에 다니고 있고 승진까지 했다고 말하는 그녀는 당당해보였다.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녀의 진심이 느껴져 가슴이 미어졌다.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다.

열린터 선생님들은 달빛시위가 열린터의 공식 프로그램이라며, 중요하다며 다른 프로그램은 빠져도 되는데 이걸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요리 빼고 조리 뺐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움직이는 걸 싫어한다. 놀러가는 것도 그리 즐기지 않는데 시위라니.....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으면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용기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때 소리 내어 말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리포터 일이나 열심히 수행하자고 덤뻐던 나는 어느새 그들과 하나가 되어있었다. 참여자가 된 기분은 참 짜릿했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 의해 아직도 여성들은 사회에서 통제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인 나 역시 나를 그런 생각으로 통제해왔다. '계집아이가 정숙해야지', '그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는 소리를 시도 때도 없이 듣고 살아왔던 나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나중엔 그 소리를 듣게 되어도 당연한 듯 받아들였고 또 그렇게 말해왔다. 어떤 친구가 '나는 커서 경찰이 될 거야'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탐탁지않은 표정으로 '여자가 무슨, 남자도 힘들다더라' 하며 그 친구와 실랑이 아닌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열린터에서 지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속임을 당하고 살아왔는지 잘못된 인식을 세뇌 받고 살아왔는지 느꼈다. 처음에는 '여자인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지?', '그건 여자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하고 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저절로 들기도 했었지만, 또 가끔씩 '여자도 저런 일쯤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내 자신을 보며 새삼 신기해 하기도 했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양성평등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번 달빛시위를 통해 여성들의 힘이 느껴졌다. 길거리 행진 때 목소리 높여 외쳤던 구호들은 내 마음속에 숨어있던 응어리를 훌어버렸다. 아주 시원 통쾌했다!!! 비가 많이 와서 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달빛시위! 달빛은 없었지만 찬란했다! ☀



# 나와 분리된 몸, 욕망 그리고 거리<sup>distance</sup>

연재 2/3

움직이는 몸 / 변형하는 몸

◎ 페미니스트 가수/성문화운동 자문위원 지현

## 확실했던 것들의 균열과 해체

데뷔 초부터 마스터베이션을 불러온 나는, 여자들의 자위에 대해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내 몸이 곧 놀이 공간이자, 늘 탐구하던 연구대상이었으니, 어릴 적부터 내 몸에 대해, 몸이 원하는 것에 대해, 즐거움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자위도 쉽게 할 수 있었고, 백과사전 탐독을 통해 몸 곳곳의 구조와 기능, 역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몸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 본질적인 욕망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잘 존중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또한 내 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롯해,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좋아하는 음악은 무엇인지, 경우에 따른 나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인지 비교적 명확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것들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푸코나 버틀러와 같이, 성, 몸에 대해 어려운 얘기들을 풀어놓는 이론가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이 내가 알고 있던 몸과 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

에 균열을 내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연적인 범주에 너무도 확실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몸, 근육, 몸의 형태 등이 시선의 권력에 의해 구성되고 혼용된다고 주장한 프랑스의 학자 미셸 푸코,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확고하게 나뉘어져 변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던 생물학적 성 역시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페미니스트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의 주장은 그 동안 잘 알고 있다고 자신했던 나의 몸의 욕망, 성적 욕망, 여성으로서 갖고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갖가지 욕망들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혼돈은 나의 욕망은 구성되고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 는 생각을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의 나의 몸이 만들어지기까지 나는 어떤 여정을 거쳤으며, 거기에는 나의 어떤 욕망이 작용하였으며, 그리고 몸의 변화와 욕망의 변화는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 # 첫 번째 장면. 보아가 되기를 원하는 대머리 가수, 섹시댄스 훈련을 견디지 못하다.

### 2002년 즈음 어느 날. 압구정동 유명 재즈댄스 학원.

음반을 내고 한참 활동을 열심히 하던 시절, 나는 여성문화운동계의 보아가 되겠다며 재즈댄스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재즈댄스 강습은 한 시간 정도 진행되었는데, 30분은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을, 나머지 30분은 안무를 익히고 재즈댄스를 훈련하는 구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력운동과 스트레칭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진행하는 강사는 날씬한 배와 허벅지, 탄력 있는 엉덩이를 언급하면서 고통을 참고 견디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재즈댄스 학원의 수강생은 90% 이상이 여성이었고, 강사 역시 여성이었습니다. 강좌의 목적은 공연을 하는 배우들을 준비시키거나,

몸매 가꾸기를 위해 운동하는 20-30대 여성들을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배우 지망생이나 모델 지망생, 현재 배우나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수강생들은 거의 다들 긴 생머리에, 배꼽이 드러나는 상의에, 딱 붙는 스판 재질의 바지를 입고 운동을 했고, 나처럼 뺨뺨 밀어버린 대머리에 혈명한 운동복을 입고 강좌를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는 즐겁게 춤을 추고 싶었지만, 과정은 혹독했고, 안무는 어려워 따라가기 힘들었고, 멋진 몸매와 잘 빠진 근육, 길어 보이는 다리 타령을 하는 강사는 지겨웠



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느껴야 하는 이질감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탈의실에서 느껴야 하는 대머리를 불편해 하는 시선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재즈댄스 강좌를 통해 나의 신체를 역동적이

며, 자유로운 형태로 변형하고 싶었으나, 강좌와 공간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성적인 섹시함과 태도, 그리고 “정상성”. 나는 이곳과 맞지 않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 # 두 번째 장면 몸을 치유하러 갔다가, 마음을 치유하다.

### 2002년 즈음 어느 날. 약수동 요가 강습소.

재즈 댄스를 그만 두고 허리가 아픈 친구가 함께 강습을 듣기를 원해, 친구 따라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요가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재즈댄스, 헬스 등의 격렬하면서 칼로리 소모가 높고, 신체의 제어와 혼육, 단련을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요가 강습을 받고, 요가가 의외로 참 마음에 들었던 것은, 몸뿐 아니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사가 수강생들에게 가장 처음 했던 이야기는 자신의 심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움직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제법 높은 동작을 하더라도 꼭 송장자세 - 팔과 다리는 적당히 벌리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휴식하는 자세 - 를 취하도록 하였고, 뭐든 억지로 하지 말라 하였

습니다. 기를 쓰고 다리를 찢고, 근육을 훈련하는 재즈 댄스와는 다른 방식이었고, 속도를 내며 스스로와 경쟁하듯 앞만 보고 달리는 러닝머신과도 달랐습니다. 요가는 본격적인 동작을 시작하기 전, 호흡과 명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작은, 몸에서 가장 먼 부분, 손가락, 발가락 관절과 근육을 움직이고 느낍니다. 요가는 다른 이들이 보기 좋은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몸과 꼼꼼하게 대화하고, 무심하게 대했던 신체의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요가를 통해 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몸은 더 이상 나에게 제어하고, 혼육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관심을 기울이고 대화해야 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 # 세 번째 장면 어슬렁거리며 게으르게 걷기, 몸을 열다.

### 2008년 3월 어느 날. 한강 둔치.

어렸을 적에는 잘 걸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걷는 일은 일상을 벗어난 일이 되었습니다. 등산이나 가야 걷고, 쇼핑을 할 때나 걷고, 차가 들어갈 수 없으면 그제야 걷고. 차가 생기고, 웬만한 거리는 걷는 대신 차를 이용해 이동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싫어해 거리를 걷는 것은 두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걷기 능력은 점점 퇴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걷는 즐거움을 잊었습니다. 오래된 차를 팔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야 나는 대중교통에 적응하고, 보행에 적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작년 봄 한강둔치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일터에 걸어 다니기를 시작하면서, 동네를 배회하던 때의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집에 가는

길, 시장을 지나가며 이것저것 다 살피고, 10분이면 도착할 거리를 한 시간, 두 시간을 걸려 집에 오던 것처럼, 최대한 느리게 걸었습니다. 길바닥을 기어가는 벌레를 밟지 않기 위해, 바닥을 꼼꼼히 살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재미와 지렁이의 속도로 걸었습니다. 많이 걸으면 당연히 몸이 달라집니다. 대중교통 안에서 스트레스 받던 몸이 아닌, 자동차 안에서 누군가 나의 사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올까 전전긍긍하는 그런 몸이 아닌, 바람이 지나고, 햇빛이 지나고, 다른 걷는 사람들의 시선과 호기심이 지나고, 그런 열린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걷는 행위는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과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하고, 경계를 허무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 # 네 번째 장면

허파에서 아가미로, 외계에 적응하다.

2009년 7월. 용산 수영장.

사람은 허파로 숨을 쉬니 물에서는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물속은 미지의 대상,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물은 나에게 그런 곳이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수영을 시작했을 때, 내에게는 “평형(개구리해엄)주의자”인 한계를 벗어나, 자유형과 배영을 잘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 수영을 배웠으면서도 자유형과 배영은 평형 실력에 전혀 못 미쳤습니다. 매번 물을 먹고, 멀리 가지도 못했습니다. 늘 고개를 내놓고 물살을 가르느 평형만을 고집했습니다. 수영강습이 시작되던 첫 날, 오디션을 보듯이 자유형, 배영, 평형으로 수영장을 몇 번이고 오가다 몸살이 났습니다. 자유형, 배영은 잘 못하니, 평형을 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탈이 났습니다. 평형이 목통증에 좋지 않다고 하여 제일 잘하는 평형을 당분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하며 내 몸이 보이는 반응은 내에게는 어떤 상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익숙해진 땅에서 벗어나



(A swimming woman: Photo by Gabriel)

전혀 다른 물의 세상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몸살이 나고야 마는, 익숙한 태도로만 외계에서 생존하려는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는 몸. 나의 몸살은 나의 의식과 무의식, 나의 머리와 몸이 불일치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몸 / 욕망 / 만들어지는 것들

욕망 찾기를 처음 기획했을 당시, 함께 기획하던 우리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여자들 몸의 욕망을 찾고, 증폭시키자. 그 첫 단추를 『몸의 욕망 찾기/자위 워크숍』을 통해 끼워보자! 그런 과정을 통해 여자들이 몸에 대해, 성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과 낯섦을 없애보자! 그래서 늘 성폭력의 예비 피해자라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마음과 몸을 가진 능동적이고, 유쾌한 여자들이 되자는 것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참여자들이 하나 둘씩 모여 들면서, 욕망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사회적 욕망”을 찾고, 그것을 현실화하고 싶어서, 어떤 이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찾고 증폭시키고 싶어서 우리 프로그램을 찾아왔지요. 이런 참가자들을 만나면서 나의 몸의 욕망과 나의 욕망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욕망과 몸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몸의 변형은 욕망해 움직임을 시작하기도 하고, 몸의 변형이 욕망을 끌어오기도 하고, 의도 없는 움직임이 몸의 변형, 욕망을 재구성하기도 합니다. 나의 의지와 별개로 몸은 움직이기도 하며, 변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황하는 순간입니다. 몸을 의지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살아있는” 몸을 만날 때, 우리는 당황하고, 몸을 두려워하고, 몸을 멀리하고, 결국은 몸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럴 땐 조금만 속도를 늦추고, 몸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는 요가를 하거나, 그저 걷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물에 그저 자신을 띄워놓고 여유 있게 송장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와 분리된 듯한 몸과의 거리를 좁힐 때 우리는 몸이 주는 두려움과 혐오감을 없앨 수도 있겠습니다. ☺

# 죽은 도키코의 부활을 위하여

## 온다 리쿠 『목요조곡』

◎ 소모임 <여성소설 읽기> 회원 그레



목요일을 가운데 두고 이박삼일 간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인원이 벌이는 서사의 퍼레이드는 실로 눈부시다. 마치 한 편의 잘 짜여진 연극처럼 열정적 언어들로 토해내는 배우들을 마주한 관객이 된 듯한 기분.

전설적인 천재 소설가 시게마츠 도키코의 죽음. 그녀는 4년 전 자신의 방에서 독이 든 물을 먹고 자살한다. 매년 그녀가 죽은 주의 목요일을 끼고 그녀의 저택에서는 그녀를 추도하기 위한 모임이 이어지고 있다. 4년이 흘렀으나, 서로 혈연관계로 엮인 시즈코, 에리코, 나오미, 츠카사, 네 명의 작가에게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하다. 그녀의 천재성을 발굴하고 모든 작품을 함께했던 편집인 에이코에게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질투와 경계심이 있다. 하물며, 치열하게 창조적이어야 하는 작가의 경우라면 천재의 재능을 탐할 것이며, 자신의 작품으로 천재의 명예를 계승할 수 있는 뒷거래가 있다면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망가져가는 자신의 이상을, 완전히 쓰러져버릴 때까지 그냥 지켜만 보는 것도 차마 못할 것이다. 원래의 당신으로 돌아가라고 협박의 글들을 줄줄이 써보낸대도 이상할 것 없다.

### 누가 시게마츠 도키코를 죽였는가?

그녀를 향한 등장인물들의 사랑은 각자 나름의 방식이 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자살 아닌 자살로 파멸하며 동시에 구원받는다. 따라서, 자신이 그녀를 죽였다는 등장인물들의 고백은 모두 맞으며, 동시에 모두 틀리기도 하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건이 등장인물들의 머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4년 전 그 저택에서 도키코와 함께했던 모임을 회고하며 사건을 추리한다. 그러나 하나의 사건에 대한 진실은 하나가 아닐 수 있으며, 그녀를 중심으로 한 네 작가들과의 관계는 다층적이고, 각 단계보다 한 단계씩 높은 감시자에 의해 조작되기도 한다.

이야기의 흡인력이 대단하여 책이 온몸을 빨아들이더라도 책을 잡고 있는 손만은 사수하겠다는 듯 책을 잡은 손은 놓을 줄을 몰랐다. 대체 그녀를 죽인 것은 누구일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범인을 추리하는 것이 글을 이끌어가는 추진력이지만, 실상은 ‘누가’ 그녀를 죽였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책장마다 한 상 가득가득 차려져 있다. 입체적인 인간의 다면적인 관계들.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어찌면 또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일 수 있는 심리들. 창작을 위한 예술가의 열정이라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저 너머의 것이라는 새삼스러운 놀라움. 그리고 소소한 일상적 대화에서 느껴지는 그녀들의 생생한 매력. 어찌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다면체의 완전히 다른 한 면을 만들어갈 수 있었는지 모른다.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부글거리며 끓고 있는 열정과 욕심. 그것을 표출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언어. 매력 넘치는 다섯 사람은 이제 돌아가 각각의 방식으로 죽은 도키코를 만나고, 사랑하고, 살려낼 것이다. 우리도 우리의 방식으로 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



# 만나고 싶었습니다

서울 수송 초등학교 교사

홍의표

© interviewer\_ 성문화운동팀 두나

인터뷰  
edutainment

“ 이번호 나눔터가 만난 분은 서울 수송 초등학교 홍의표 선생님입니다. 상담소는 올해 초등학생들을 위한 대안적 성/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감수성교실> 시범교육을 통해 선생님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상담소의 제안을 반가워하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늘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지 고민하시는 홍의표 선생님과 인권교육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 보실래요? ”

**Q** 먼저 <인권감수성교실> 시범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인권감수성교실>은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런 성/인권교육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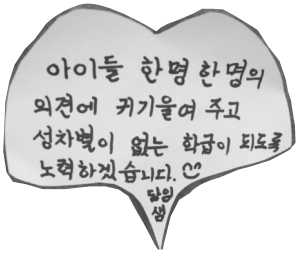
**A** 인권교육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문제의 정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게 되더라도 스스로 그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힘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性)에 대한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인권감수성교실>과 같은 프로그램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이라는 것이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유용한 도구지만 잘 못쓰면 흉기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칼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위험하다며 아이들에게 제대로 사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결국 그 칼이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할지도 몰라요. 부모나 교사들이 아이들과 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통제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성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Q** <인권감수성교실>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아이들의 다양한 반응이 생각나는데요. 특히 적나라한 신체 사진을 보여주셨던 때가 기억납니다. 사실 그때 저도 약간 당황했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놀랐던 것 같고요. 아이들이 사진을 똑바로 보지 못했던 것 기억나시죠? 아마 친구들과 몸을 보는 것이 어색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거나 궁금해 한다는 것이 드러나면 친구들이 자기를 ‘변태’로 생각할까봐 일부러 관



심 없는 척 하는 것이기도 해요. 아이들은 성에 무지하거나 순수해야 한다는 규범이 이미 아이들에게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 선생님께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고민들을 <인권교육센터 들(이하 <들>)>에서 활동하며 나누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들>은 어떤 곳인가요?

**A** <들>은 인권교육 활동가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곳입니다. <들>은 ‘교육개발팀’, ‘이론연구팀’, ‘워크숍지원팀’, ‘활동지원팀’ 체계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교육개발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개발팀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인권’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 인권 개념을 설명하기보다 우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려고 해요. (<인권교육센터 들> <http://www.dlhre.org/>)

**Q** 인권교육에 대한 이러한 고민과 활동을 제도권 교육으로 가지고 왔을 때, 다른 교사들이나 학부모, 아이들의 관심과 반응은 어떤가요? 어려움은 없었지요?

**A** 예전에 비해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사, 학부모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활동이나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안타깝습니다. 학기 안에 마쳐야 하는 교과진도가 있으니 교사들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이들과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겨도 교사인 저의 입장이 아이들의 삶에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인권의 화두 중에서 정치·사회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다룰 때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전에 아이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군대보다 감옥 가는 기간이 짧다며 군대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아이들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가진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럴 때는 당장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앞으로 지향해 가야 할 것들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인권교육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언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인권교육을 하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삶을 조금씩 바꿀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살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삶의 지향이나 사고방식이 변하기도 하잖아요. 인권교육이 아이들에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들 한명 한명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일까요? 시범교육에서 만난 선생님 반 아이들의 학교생활은 신나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삶의 소중한 시간을 멋진 선생님과 함께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 뭔대! 상담소



**상당보고** 2009년 1월~6월  
총 1,076회 / 총 718건 (성폭력: 966회 / 658건, 기타: 110회 / 60건)  
전체 1,076회 중 전화 885회 / 면접 154회 / 온라인 29회 / 기타 8회

**7.7** 2010년 계획회의  
차기년도 활동계획을 그림 그리는 1차 계획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팀 활동가들은 이날을 위해 예년보다 일찍부터 지난 사업을 평가하고, 앞으로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생을 했다지요. 새로 시작해야 할 운동, 아름답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업,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어떤 지속가능하고 힘을 짜르는 운동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할 수 있어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계획회의는 하반기에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7.9** 윤하백지화국민행동 천막농성 1일 연대  
푸우가 쏟아지던 날 조개사 앞,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공부하고, 농성장도 지키는 1일 연대를 하고 왔습니다. 환경영향성검토, 문화재관리, 상수원 보호 등 법적체제도 프리패스한 사업. 댐이 십 수 개 생기면 흙과 산과 늪이 허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강 바닥을 파서 준설하면 강과 주변의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강은 강대로 흘렀으면 바라신다면 홈페이지(http://www.nocanal.org)를 방문해주세요!

**7.13 / 7.18** 법관(7/13) 및 변호사(7/18) 교육  
사법 연수원은 올해 처음으로 법관을 대상으로 [여성과 법, 그리고 법원] 연수를 실시하였고, 우리 상당소에서는 그간의 상담경험을 통해서 공판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문제와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대안책을 중심으로 강연을 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하는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 교육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법조인과 협력할 수 있는 영역과 방법에 대해서 강연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17** 제6회 밤길되찾기시위  
7월 17일 제6회 밤길되찾기시위 '달빛아래 여성들, 어둠의 봉인을 해제하다'가 열렸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뚫고 청계광장에 모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밤길되찾기시위에서는 여장지연씨 사건을 중심으로 여성의 몸과 성, 일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성폭력 문제를 폭로하고, 여성들의 밤거리와 일상을 통제하는 사회의 통념에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올해 함께 나누었던 분노와 힘을 기억하며 내년 7회 밤길되찾기시위에서 다시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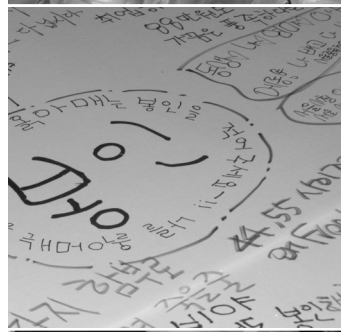
**7.27** KSVRC 월례포럼 : '여성들이 만드는 의료, 건강, 복지'  
7월 28일 늦은 7시, 모임터에서는 큰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7월 월례포럼 '여성들이 만드는 의료, 건강, 복지'에서 커다란 상상과 포부를 나누고 새로운 심호흡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건강을 돈으로 유지하는 사회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타인을 돌보는 마음과 능력으로 연결되어 나도 기꺼이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이웃의 건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나누고 싶다면, 건강은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잘못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달랠려고 믿는다면 여성주의 의료 생협이라는 도전에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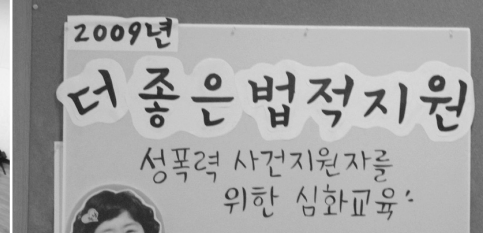
**8.23** 자기방어 시책  
8월23일,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자기방어훈련이 유쾌발랄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의가 이어지는 등 그 열기가 가히 뜨거웠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고정점 선생님과 함께 2인 1조로 즐겁게 운동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평소부터 '몸 튼튼, 마음 튼튼' 기초체력을 다져서, 자기방어훈련에 도전해보아요.

**8.24**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 기자회견  
8월2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제자리찾기공동행동'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현 병철 위원장의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의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하고, 정당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인권적 발언을 규탄하며, 위원장 퇴진을 요구 하였습니다.

**8.19~26** 성인중자별대책위 진영 접수 및 토론회 개최  
지난 7월, 버스 안에서 한국인 남성이 인도인남성과 한국여성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조사 중이던 경찰의 고압적인 자세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결성된 '성인중자별대책위'는 8월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고, 26일 오후 2시부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강당에서 '한국사회 성·인종차별문제 토론회'나 이제 할 말 있다'를 개최하였습니다.

**8.27~28**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 수련회  
우리 상당소에서는 '현 시국과 여성운동 방향 모색'을 위하여의 주제로 개최된 2009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 수련회에 참석, 현 시국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여성운동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여성운동의 역할과 운동방향에 관한 진지한 토론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상당소 이운삼 소장은 지난 6~7월 동안 여연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한 '여성운동의 제도화와 대응방안'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제도화에 대한 여성운동 진영의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에 함께 하였습니다.





### 2009 인권감수성교실 시범교육

6월 4일 부터 7월 7일까지 이루어진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의 <성폭력, <성차별 등에 대한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한 <2009 인권감수성교실> 시범교육이 무사히 종료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이들의 반응과 쏟아지는 질문에 강사들은 진땀을 흘렸지만 덕분에 제도권교육 안에서 <인권감수성교실>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다 다양한 현장과 맞닿아 있는 <인권감수성교실>로 거듭 날 수 있었습니다.

6/4 1차시 "똑똑, 내 몸에서 변화의 신호가 와요!" 6/11 2차시 "충돌! 성폭력수사대!"  
6/15 3차시 "평등법자리를 찾아서" 7/2 4차시 "배사! 성폭력을 격파하라!"  
7/7 5차시 "우리 손으로 키우는 인권나무"

### 더 좋은 법적지원 :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심화교육

<더 좋은 법적지원 : 성폭력 사건지원자를 위한 심화교육>이 올해 세 번째 성폭력전문상담원의 심화교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5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본 교육에는 총 3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하는 사건지원자들에게 '법적지원 파트'를 특화하여 법적지식을 점검하고, 더욱 효율적인 피해지원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기본교육 이후 '성폭력에 집중된 재교육'에 목말랐던 실무자들은 열정적으로 토론하고 지원경험들을 나누었습니다. 활용도가 높은 민·형사 사건지원부터 노동부, 인권위원회, 공익소송을 활용한 다양한 사건지원 노하우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건지원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더 좋은 사건지원자가 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 성폭력 상담 실습교육

서강대 양성평등성상담실에서 진행하는 <성폭력상담원교육: 맞춤형 성인자감수성 교육> 중 3단계인 <참여 관찰 및 실습교육>을 5월 28일에서 6월 17일까지 우리 상담소에서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총 32분이 실습교육에 참석하여 2단계까지의 지식을 상담현장에 적용해보고 훈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 故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대응활동

- 사건 관련 활동 : 7/2 시대난독 "여성연예인으로 산다는 것: 연예 노동과 인권" 발제 및 토론 -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에서 주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고인의 죽음의 계기로 우리가 제기해야 할 사회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고갑희, 진보신당 대외협력국장 나영정,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키라 활동가가 발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스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여성 연예인의 섹슈얼리티를 대중적인 이슈로 만들 내용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여성 연예인 노조를 바라보는 참여자들 사이의 다른 의견과 그 차이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할말 많은 UCC 행동단 \_ 故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일들을 향한 슬픔과 분노, 애도의 마음이 케미라 렌즈와 편집을 통해 세상과 만나게 되었던 '할 말 많은 UCC행동단'이 두 달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을 기억하는 자기만의 방식은 세상 어디 즈음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있을 것이라 기대해봅니다."

\* UCC들은 <할 말 많은 UCC 행동단 블로그>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jinbo.net/ucc\\_action/](http://blog.jinbo.net/ucc_action/))

7/17 달빛시위 중 "망각에 저항하는 대단한 UCC : 할 말 많은 UCC 행동단 상영회" 과 장자연 씨의 죽음을 대해, 우리가 내고 싶었던 많은 목소리들이 영상을 통해 세상과 만났던 UCC 행동단 그동안 제작되었던 UCC들을 모아 달빛시위가 진행된 청계광장에서 상영하였습니다.

### 반차별공동행동 일지

#### 7/22 반차별공동행동 전체회의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상반기에 내부적으로 진행되었던 반차별 운동에 대한 논의의 성과로서 반차별 운동의 원칙을 완성하였습니다. 피해/차별을 이기하는 방식과 내용, 기존 해석의 이면을 볼 수 있는 유연한 세계관, 기존 대중 운동의 관성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등이 원칙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에 발행될 월지과, 상상더하기의 기획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관련 활동은 반차별 공동행동 홈페이지(<http://chachacha.jinbo.net>)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7/31 반차별공동행동 홈커밍데이

그동안 반차별공동행동에서 만났던 소중한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여 반갑고 고마운 마음으로 성미산 미술극장에서 홈커밍데이를 치렀습니다. '감추고 싶었지만'이라는 타이틀의 이번 행사는 각 단체 활동가들의 춤과 노래, 시낭송으로 채워졌습니다. 반차별 공동행동이라는 연대 활동의 즐거움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열정을 또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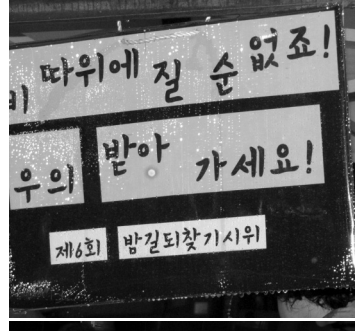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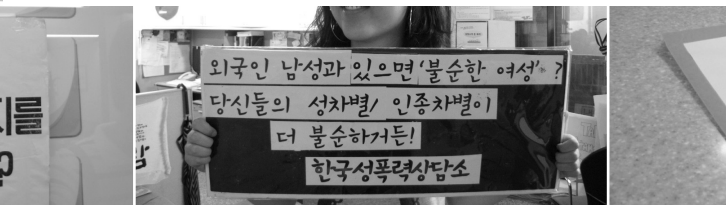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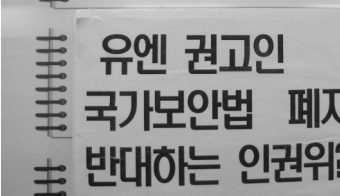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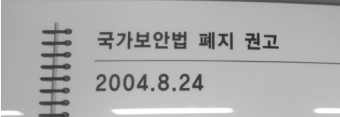
### 작은 말하기

7월과 8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작은말하기가 열렸습니다. 작은말하기를 통해 처음 피해경험을 말하게 되고, 이제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대면하고, 어떻게 사과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29 작은 말하기 @ cafe 사이에 8/30 작은 말하기 @ cafe 사이에

### 상담활동가 사례연구회의

7/24 7월의 사례연구회의 주제는 '스토킹 피해 이후 계속되는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 및 사건지원 전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수퍼바이저는 조용범 박사님(더트리 그룹), 수퍼바이저는 피오나(상담활동가)로 스토킹에 대한 공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8/25 8월의 사례연구회의는 김수형(한마음 상담센터)를 수퍼바이저로 모시고 수퍼바이저 행복(상담활동가)과 함께 직장 일무를 벌이로 일어나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잘해야 한다'는 상담자의 강박관념이 오히려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되새기고 내담자의 원하는 바가 우선시 되는 상담에 대해 공유해 보았습니다.



# 실전처럼 연습하면, 연습처럼 대응할 수 있다

2009년 가을,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 나눔터 편집팀




요즘 응봉역 근처의 박사경희대체육관, 매주 일요일마다 여자들의 기합 소리와 땀 냄새가 가득합니다. 바로 8월 23일부터 시작된 <성폭력 공포 타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성폭력에 대한 공포로 일상의 안전이 박탈되는 것을 거부하는 여자들, 든든한 남자 친구가 여자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알팍한 거짓말에 싫증난 여자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발차기를 하고, 숨이 턱까지 차도록 힘껏 달리고, 뺏속부터 끓어오르는 기합을 질러보면서 성폭력에 대한 공포와 무기력감은 이미 예전의 기억이 되어버리는 신세계의 경험을 하고 있지요.

이 프로그램은 성폭력에 대한 공포가 '여자는 원래 신체적으로 약하고 수동적이다'라는 여성 몸에 대한 편견과 결합하여 많은 여성들에게 거대한 무기력감을 강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기사화될 때마다, 성폭력은 '여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처럼 회자되고, 따라서 무차별적인 공포가 확산되었지요. 생각해보면 성폭력이 그토록 만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가장 필요한 해결책은 여자들에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는 '여자는 남자보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지요. 사실 몸은 훈련에 의해서 늘 변화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싸움의 상황에서 '강

함/약함'은 늘 공격자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데 말이지요.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극대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는, 많은 여성들이 실제 '피/공격 상황'에 대처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몸싸움은 여자답지 못한 것이라고 배우고, 축구나 농구와 같은 경쟁적인 스포츠는 남성들에게 적당한 운동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체력이 크고 힘이 센 여자들은 고작해야 텔레비전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농담의 소재로 다루어질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이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성폭력 공포타파 프로젝트> 프로그램에서는 여자들의 탄탄한 근육, 쏘아보는 눈빛, 거친 숨소리와 땀방울이 그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계속될 이 프로그램에서는 내 몸의 강점과 상대의 약점 파악, 위험 반응 속도 향상, 몸 근육 키우기 등의 흥미진진한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로는, 실제 자신을 공격하는 가해자에게 대응해보는 실전 훈련이 기다리고 있지요(가해자 역할을 해주실 분은 현직 경찰관이십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요?

'실전처럼 연습하면, 연습처럼 대응할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바로 자신들의 몸으로 실현하고 있는 용기백배 여성들에게,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2009 성폭력 공포 타파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몸 훈련 발표회와 수료식이 11/1(일) 오후 2시, 박사경희대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용감한 그녀들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중앙선 응봉역 출구 직진 후 오른 편

report & membership



# 함께 쓰는 공익적 가치, 오픈 노하우

## ◎ 나눔터 편집팀

원하는 정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몇 시간이고 웹서핑을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가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각종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정보의 제공과 교환이 활발해졌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에 관련한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결과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죠. 개인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 등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여겨졌던 것들도 정보로서 유통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상 속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웹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음세대재단에서 기획한 <오픈 노하우>입니다. <함께 쓰는 공익적 가치, 오픈 노하우>는 온라인에서의 협업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담은 노하우, 매뉴얼 등을 위키<sup>1)</sup> 플랫폼을 기반으로 함께 만들어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상답소는 <오픈 노하우>의 '성폭력' 페이지를 통해 성폭력의 개념과 통념부터 피해 발생 시의 법적·의료적 대응 방법,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오픈 노하우> 페이지는 상답소가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자신의 정보와 노하우를 자유롭게 수정·편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폭력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곳곳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웹을 통해 유용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 그러한 방식이 바로 '온라인



협업'이며, 이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성폭력에 대한 정보 공유와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활동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픈 노하우>의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 페이지에 본인의 활동을 공유해주세요. 우리 상답소의 활동과 함께 곳곳의 다양한 반성폭력 운동의 기록과 경험들이 씨실과 날실이 되어 엮인다면 자연히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예요. <오픈 노하우>, 지금 당장 방문해보세요! 

- 성폭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오픈 노하우> <http://openknowhow.itcanus.net/> 에서 표제어 '성폭력'을 검색!

상답소의 블로그가 **확!** 바뀌었습니다.

<http://stoprape.or.kr/> 로 들어오시면 보다 알찬 블로그 <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위키(Wiki)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글의 한 가지, 또는 그런 글을 쓰는 협력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러한 위키 플랫폼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위키백과(위키피디아)'가 있습니다. 위키백과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며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국어판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등록된 페이지에 대해 모든 네티즌이 수정·편집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처: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 ‘듣고



성문화운동팀 보짱

새로 성문화운동팀의 상근자로 일하게 된 보짱입니다. 반차별공동행동, 자기방어훈련 등 사업 곳곳에서 전임자였던 키라의 열정과 노력들을 보면서, 벌써부터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성문화운동팀의 성과를 이어받아 보짱식으로 재해석하면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대표하는 새로운 이슈들과 운동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밌고 자유로운, 그러나 책임지는 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주의상담팀 이지혜

1시간 남짓한 긴 면담과 예정보다 지연된 결과발표에 가슴이 두근두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지붕 아래서 활동가들이 꾸미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대문을 박차고 나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기대를 가득 품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아직은 업무에 적응하는 단계이지만 앞으로 이곳에서 제가 꾸려나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 나기

2년이 훌쩍 넘는 상근 활동을 하며, 이곳에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색깔의 운동과 열정들을 만났습니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변화의 믿음을 이곳에서 얻어갔으니, 살아가면서 별로 겁날 것 없을 것 같네요. 마음 깊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성문화운동팀 키라

서울 생활에 어리둥절했던 저에게 상담소는 사무실에 더 쉽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지하철 노선까지 알려주는 친절한 곳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준비하고 맛있게 먹어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었어요. 이제 저는 긴 시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온 자신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 자원활동, 그리고 나만의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해준 상담소 식구들과 상담활동가 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주의상담팀 김미

## [소모임 활동]

지금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 현재 힘차게 굴러가고 있는 소모임들입니다. 회원님, 언제나 문 두드려 주세요~ (소모임 최근 소식은 상담소 홈페이지 [www.sisters.or.kr](http://www.sisters.or.kr) 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토닥소모임** : '토닥토닥' 잔걸음으로라도 오래 가지는 모토로 만들어진 여성학 모임입니다. 젠더, 권력, 성차별, 성폭력 등의 다양한 주제를 '여성의 삶'에 대한 관찰, 논의의 '재미'를 곁들여 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성소셜읽기 모임** : 새로 오신 소모임 멤버를 환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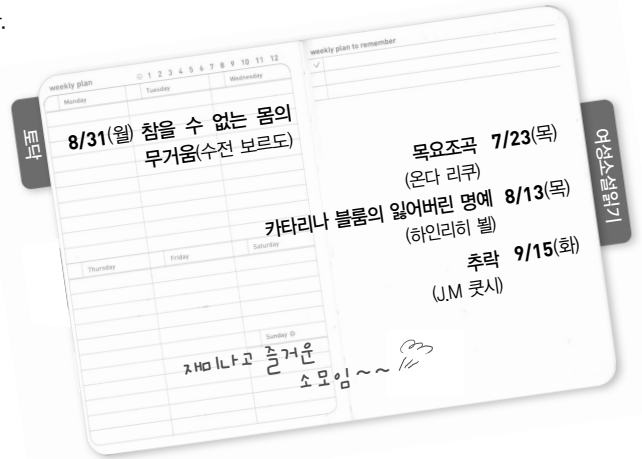
그레 : 이번 호 소모임 칼럼 작렬~

윤주 : 공감 3M 플래그 백만 개!

레이 : 야근이 미워요! & 잠시 헤어지는 멤버들.

지선 : 창원 도서관을 접수하라

영란 : 소설모임 내 둘째 아기 축하!



정말 즐겁고 끈끈한 모임들이랍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 함께 하실래요?

## [훈훈한 기부]

♥ 지난 5월에 걸려온 한통의 전화, 그것은 성주그룹 막스앤스펜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의류를 후원하신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막스앤스펜서의 후원유료로 6월 말부터 바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은 열린터 생활인들의 피복비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성주 그룹에 감사드립니다.

♥ 어느날 갑자기 상담소를 찾아온 김하나 회원님의 큰 택배 상자! 그 안에는 보석보다 더 값진 여러 종류의 커피들과 핫초코가 용기종기 있었어요. 활동가들이 지치고 힘들 때 먹는 은은한 커피와 핫초코! 보약처럼 기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커피, 핫초코를 선사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 前 상담활동가 꿈이의 어머니께서 담귀 보내주신 새콤달콤매콤 김치! 그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푸짐한지 어머니의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의 영양 간식이자 밑반찬이 되어준 감사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책임상담원 보듬이 님이 보내주신 쌀과 잡곡은 상담소와 열린터 식구들의 식탁을 푸짐하게 빛내고 있습니다! 모두들 탄성을 내지르며 호호호 즐거운 웃음이 끊이질 않았답니다! 감사합니다.

♥ 정재완 님께서 열린터에 자주 한 상자를 보내주셔서 저녁마다 모여 맛있게 먹었습니다.

♥ 6월부터 7월까지 정진욱, 이진영, 한영규, 김학실 회원님이 회

비중액을 요청하셨습니다! 회비를 증액하신 그 마음 잊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귀한 시간을 쪼개며 '6회 밤길되찾기시위' 기획단으로 멋지게 활동해주신 미선, 현정, 소요, 선의, 레기, 다원, 나나, 닝구, 나른 님! 그리고 6회 밤길되찾기시위에서 자원활동을 해주신 구예리, 정해인, 재규 님! 여러분들이 있어 달빛시위는 더욱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7월 한 달 동안 사회복지 실습을 하신 리인 님과 정순 님, 상담소 활동을 열심히 도와주신 윤민아, 문지혜 자원활동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 덕분에 우리 상담소는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열린터 가족들의 배움을 위해 애쓰시는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문구미정(수학, 멘토), 떠비(영어), 박소영(영어), 최정임(영어, 수학), 우완(멘토), 효선(국어), 상미(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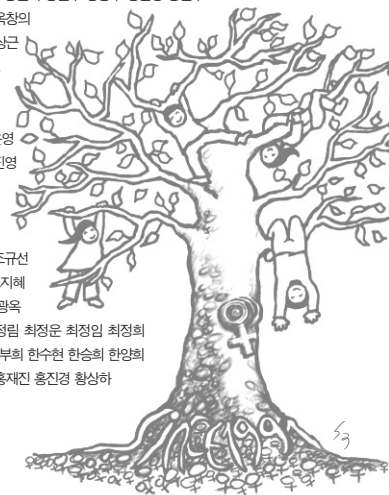
# 아낌없이 주는 나무

2009년 5월 29일부터 2009년 7월 31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

배지연 정현 이계형 춘옥 안보라 정윤정 윤호정 김현진 나무 김원화 노영태 이명숙 김경화 박덕일 김옥은 허효정 김난형 문준희 권민혁 최숙희 최왕열 노유성 최소란 전지혜 윤희연 슌 차인순 박하윤경 임오주 박정은 김원희 양윤희 박정은 이은비

2009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강가람 강성진 강근정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영숙 강명지 김미경 김보길 강선미 김수준 강영미 강영준 강영화 강인화 강정희 김지이 강진원 강형구 강혜숙 강희진 경선미 계경문 고계영 고금미 고미라 고보경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성 고화정 곡옥미 곡유나 구민지 권구홍 권기옥 권민혁 권순영 권오란 권요안 권주희 권학봉 권혜수 금철영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진 김경태 김경훈 김광진 김금선 김나연 김난형 김다미 김대숙 김도연 김동령 김동현 김두나 김동순 김매정 김명륜 김명숙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숙 김미영 김미옥 김민규 김민정 김민화 김병필 김부연 김보화 김봉식 김삼미 김상호 김상희 김선희 김석별 김석재 김선경 김선미 김선민 김선애 김선화 김성자 김성현 김세종 김소명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진 김숙임 김순옥 김순자 김승규 김아리 김애란 김양지 김연정 김엘림 김연정 김연기 김연정 김연진 김연희 김영희 김영미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진 김영화 김영환 김예람 김옥은 김옥주 김유란 김원희 김원정 김원희 김유진 김유진 김윤정 김윤희 김은아 김은영 김은하 김은희 김은희 김은진 김의향 김이마나 김인에 김일련 김자경 김재원 김재원 김정은 김정화 김중숙 김중수 김중희 김주희 김준호 김지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진선 김진희 김진호 김택한 김태섭 김택진 김하나 김하연 김하정 김학실 김한선 김한선혜 김해정 김현 김현정 김현란 김현성 김현수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란 김혜련 김혜솔 김혜영 김혜정 김혜진 김홍숙 김효정 김희경 김희정 김희창 나희화 나루 나영우 나태식 남필식 남우희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노경란 노귀연 노길옥 노미선 노복미 노상숙 노소인 노수희 노유성 노재복 노정주 도병옥 도상금 류란 류중현 류진봉 명기진 목소희 안효준 아라 엄경출 엄인숙 여명숙 여연실 엄명덕 오경희 오광수 오다현 오미근 오세희 오승환 오숙희 오지영 오정진 오정희 오현숙 오현주 오현동 오혜란 옥민영 옥창의 우안숙 우민 우춘희 원민경 원민혜 원성경 원순경 원형실 원혜숙 유경희 유계옥 유상열 유선옥 유선원 유예리 유원희 유은주 유언숙 유재영 유한나 유혜숙 유현광 육성근 육향순 윤병식 윤사남 윤소정 윤소희 윤수연 윤숙경 윤애리 윤양현 윤연숙 윤영란 윤영숙 윤영숙 윤영옥 윤유미 윤인호 윤자영 윤정희 윤지영 윤지원 윤지희 윤희화 윤희연 이경로 이경미 이경숙 이경아 이경자 이고은 이규하 이금란 이기찬 이기영 이나래 이나영 이나희 이도규 이도현 이명숙 이명희 이문주 이미정 이민영 이민철 이병주 이실래 이삼근 이삼미 이상연 이상은 이세훈 이서영 이서지 이선영 이서대 이상수 이상실 이세원 이소필 이소영 이수안 이수용 이순은 이순희 이숙진 이숙정 이애란 이아진 이연실 이영기 이영미 이영주 이영택 이예지 이용창 이원홍 이우정 이윤상 이윤선 이윤숙 이윤옥 이윤희 이은 이은상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정 이은지 이은희 이재선 이재은 이재인 이정복 이정준 이정아 이정은 이정화 이종희 이주현 이준범 이준희 이지선 이지영 이지은 이지희 이진숙 이진아 이진영 이찬희 이창원 이창윤 이충주 이혜희 이함심 이현숙 이혜숙 이효규 이효중 이효진 이효연 이효선 이희경 이희화 임복선 임수연 임승환 임오주 임지영 임주희 임치선 임지선 임홍심 임희은 장다혜 장미정 장순래 장영혜 장영희 장영정 장은미 장은옥 장익수 장중순 장진 정철우 장효정 장희정 전범미 전아람 전연배 전영애 전유정 전정현 전주경 전지현 전해정 전호원 정아라 정경애 정경애 정교화 정국통 정금나 정나란 정다희 정대성 정덕기 정명중 정문영 정문정 정민이 정복련 정순진 정숙옥 정순희 정어연 정영성 정영선 정옥문 정옥실 정유석 정윤아 정윤주 정은영 정정희 정지영 정지원 정지현 정창희 정혜라 정현희 정혜윤 조은 조계삼 조규선 조민우 조선희 조서연 조선주 조세영 조소연 조양복 조영선 조윤범 조원복 조유주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숙 조인숙 조인숙 조인숙 조재욱 조정은 조준성 조지혜 조희미 조희아 조혜영 주명희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인순 진석중 진태란 차상안 차인순 차현영 채승아 채우민 채하승연 채현숙 채희영 최경식 최광희 최광식 최광옥 최기희 최동식 최명숙 최석우 최선규 최성숙 최소희 최소란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순미 최아람 최연순 최옥경 최왕열 최용득 최유진 최은수 최은정 최은영 최정민 최정희 최지나 최지나 최지영 최진아 최현우 최정희 추주형 카라 탁옥희 하나은 하디영 하수은 하은주 하중숙 하주선 하진숙 한국아미키미자 한기모 한문현 한병규 한보경 한부희 한수현 한승희 한양희 한영규 한영은 한영태 한유자 한윤정 한재철 한희숙 한희정 허경현 허남주 허리금 허순만 허은주 허준식 허혜정 허효정 홍민희 홍민철 홍보연 홍성이 홍윤기 홍은정 홍재진 홍진경 황상하 황성기 황수희 황숙희 황성경 황지영 황지은 SUNS(산미기) 네이버 해피빈과 싸이월드타운의 기부자 여러분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

강대열 김경자 김지원 김진자 강학중 고정남 권민정 권익순 권진주 권형구 김현정 김덕현 김명희 김원희 김미주 김삼화 김선영 김옥란 김재연 김정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희영 김효선 김희경 노주희 Nicola Jones Lena Levit 명진숙 문경란 민기원 박윤숙 박운선 박지만 배 경 배삼희 배정희 반대규 변혜정 손은숙 시연숙 신동선 신정희 안백민 안형준 아기사노부 우기호 유효상 이경환 이성훈 이기철 이덕화 이윤림 이명선 이명숙 이명숙 이명희 이명주 이삼우 이만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우정 이정숙 이혜정 이혜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희 임순영 장문희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준 정인나 정영태 정재정 정진옥 정희재 조선희 조성천 조영환 조임래 조혜옥 주관수 채영수 천수빈 천정환 청담아리신부인과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한국텔레콤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순아 무기명기부